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

용마골프대회 64조 참가 “경남중고 동문의 저력”

최다 기수·최다 협찬까지...‘우정의 만남’ 갈증 폭발
화합·결속력 과시, 새 희망 찾는 계기로 승화시켜야

18일 부산CC서 개최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에 힘입어 최다 인원 참가와 최다 기수 참가, 최다 협찬 기록이라는 최고의 대회를 갖게 되었다.”

오는 10월 18일(월) 금정구 노포동 소재 부산컨트리클럽에 열리는 제23회 총동창회장기 쟁탈 용마골프대회를 주관하는 용마골프회 이종휘(32회) 회장의 말이다.

근자에 들어 총동창회 주최 대형행사가 없기도 했지만, 이번처럼 많은 동문이 참여한 것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우정을 나누는 만남에 대한 갈증이 폭발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마디로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회 참가자는 64조 256명이

다. 역대 최다이며, 앞으로도 이 같은 기록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기 순번을 받고 있는 동문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기념식과 만찬을 가지지 못하기에 가능한 일이 되었다. 코로나상황이 아닐 경우 기념식과 만찬을 가질 시 이만한 인원을 수용할 장소가 인근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에 16회 동문에서부터 54회 동문까지 모두 35개 기수가 참가했다. 64조 대기록 달성까지는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용마골프회 현 집행부의 노력이 컸다. 더불어 용마골프회의 창립을 주도했던 박종찬(25회) 고문과 초대 회장 김대옥(29회) 총동창회장, 2대인 이 회장 등의 골프 애호, 리더십과 친화력을 토양으로 하여 동호회가 뿌리를 내린 성과가 나타났다는 평가이다.

또한 이번 대회가 초대형 행사가 된 것은 골프애호 동문의 저변 확대는 물론이고,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자제돼 왔던 동문회 모임에서 ‘우정의 향기’를 흠뻑 마시고 싶은 개별적 충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동창회장은 “64조 출전 대회는 경남중고 동문회의 저력이 대단하다는 사실과 경남중고 용마의 끈끈한 결속력을 증언하고 있다.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이 에너지를 결집시키자”고 말했다.

이 용마골프회 회장은 “용마골프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64조 달성에 큰 힘이 됐다. 감사하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여러 면에서 많이 위축되었는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부정적 요소들을 털고 새로운 희망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모교사랑기금 기부자 참여현황

2021년 9월 29일 현재 (단위 : 만원)

개인			
회차	기수	이름	금액
5회	5	상기종	250
		김영무	
		김병도	
		임성업	
6회	1	오영은	100
7회	1	김삼현	500
12회	2	배중섭	30
		조한기	3
13회	1	김성훈	10
17회	1	이수창	100
18회	1	하영일	20
24회	1	곽두희	100
		곽동원	50
		김옥철	30
		김종현	100
		박종찬	10,000
		오양득	30
		옥동훈	20
29회	7	정철수	100
		김대옥	10,000
		(약정액4억4천만원)	
		김영찬	100
		김종명	100
		이문열	200
		이선호	100
31회	1	차의수	100
		현응열	100
31회	1	김종규	31
32회	1	이종휘	1,000
		김윤성	50
33회	3	백수현	50
		최웅남	100
34회	2	이진호	500
36회	1	박철웅	550
37회	1	정윤희	30
38회	2	이수환	30
		김태호	30
39회	4	박이현	100
		박종국	10
		백기현	50
		윤원옥	100
41회	2	정순환	100
		김정태	410
43회	2	최영준	410
		김민석	10
44회	1	김진수	10
45회	1	전광열	50
46회	1	박현승	20
47회	1	정수찬	20
54회	2	정신	300
		김영빈	10
55회	1	정준섭	30
56회	1	이욱한	10
58회	1	류은재	20
58회	1	오을경	10
참여인원(명)		55	개인 합계
			26,184



‘5회 영웅’ 졸업 70주년 기념식이 지난 9월 27일 오후 총동창회관 행사장에서 열렸다. <사진=윤원옥(39회) 영상편집위원>

모교사랑기금 모금운동, 추진 동력 필요

코로나19와 경기악화로 정세 현상...분위기 조성을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한 ‘모교사랑기금’ 모금운동이 닷달째를 맞으면서 새로운 추진동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9월 29일 현재 전체 합계가 2억8,651만원에 머무르고 있다. 김대옥(29회) 총동창회장이 연말까지 납부 약정한 액수 모두를 포함하더라도 6억원 남짓한 액수이다. 목표액 30억원에는 한

참 떨어진다.

이처럼 기대치에 모자라는 모금 실적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기악화와 동창회 활동의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총동창회관 건립 기금 모금운동으로 인한 피로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근자에 들어 동창회 조직의 역동성과 총동창회관 건립 파장으로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기대를 걸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기사 2면에 넘김>

<모교사랑기금 계좌 안내>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는 경우:
부산은행 101-2074-0344-01
경남중고 총동창회 김대옥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부산은행 029-01-030712-1
(재단)용마장학회 이용흠

동기회	
7회 동기회	300
45회 동기회	450
51회 동기회	100
52회 동기회	52
55회 동기회	55
동기회 합계	957

단체	
강서지구동창회	100
경미회	160
경미회 대외협력분과	30
경미회 문화체육분과	30
경미회 미래발전분과	30
경미회 사회공헌분과	30
경미회 친목교류분과	30
김해지역동창회	50
남부산지구동창회	100
덕형리	300
동래금정지구동창회	100
미술작가 작품 판매 수익 기부금 (30박홍식/38박규열/41김현/41여근섭)	230
삼사공사 (13배대결/13윤기갑/14김화옥/24김인구)	20
용건회	50
주경아독회원일동	50
창원지역동창회	100
해운대지구동창회	100
단체 합계	1,510
전체 합계	28,651

총동창회·재경동창회, 모교80년사 공동편찬 뜻모아

총동창회는 학교사, 재경동창회는 동창회사 주관 협의

발간처는 '경남중고80년사 편찬위원회' 동의
동창회사 발간일 두고 상호 이견...조율 진행

경남중고 80년사가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의 공동편찬으로 발간된다. 양측 편찬위원회는 최근 일련의 접촉을 통해 모교80년사 공동편찬을 전제로 학교사는 총동창회가, 동창회사는 재경동창회가 주관기로 협의했다. 총동창회는 두 가지 모두를 총동창회가 주관할 뜻을 피력했다가 재경동창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총동창회는 실무소위에서 목차, 역할 분담, 편집방향, 일정계획 등을 작성키로 하고, 올해 연말경 진행상황을 상호 파악하고 향후 진도를 협의하는 안을 제의해 둔 상태이다.

발행처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이 한발 물러서 협의안을 도출, '경남중고80년사 편찬위원회'로 의견을 모았다. 총동창회는 '경남중고 총동창회'를, 재경동

창회는 '경남중고 총동창회'와 '경남중고 재경동창회'를 병기하는 안을 제의했다.

하지만 발간일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총동창회 측은 80주년 개교기념일에 맞춰 2022년 4월 25일까지 학교사와 동창회사를 함께 발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경동창회 측은 학교사는 내년 4월 25일까지로 하되, 동창회사는 내년 연말까지로 발간일정을 늦출 것을 요청했다. 총동창회 측은 학교사와 동창회사 2권이 동시에 나와야 의미가 있고, 이미 제작을 계약해둔 금성기획과의 출판경비 정산 문제가 걸려 있어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두 권을 따로 출판할 시 작업 관리가 느슨해지고, 동력이 떨어질 게 뻔하다. 또한 편찬위원회 편집위원들의 피로도가 심각할 정도로 고조돼 있어 더 이상의 위원회 가동은 무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총동창회 측은 80년사 제작을 A4 규격 2책(冊) 1질(帙) 총 2천 페이지 분량으로 제안했다. 학교사 1,200페이지, 동창회사 800페이지이다. 재경 측의 자료를 다량 반영하기 위해 애초 계획에서 3분의 1 가량 분량을 늘렸다.



지난 9월 9일 오전 총동창회관 내 모교80년사 편찬위원회에서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 간 공동편찬과 관련한 협의가 있었다.

이밖에 출판 사항은 총동창회가 주관하며, 가편집본 감수 및 교열 작업 등은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격은 총동창회장과 재경동창회장의 협의 사항으로 이관키로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한편 양측은 실무소위를 두기로 하고 총동창회에서는 전섭태(25회) 박종기(28회) 편집위원이, 재경동창회에서는 이민부(27회) 재경 편찬위원과 박승준(27회) 재경 실무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

양측의 협력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팔목할 만한 성과의 이면에는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공동편찬의 목표를 이뤄내자는 동문의식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중순 총동창회 편집위원 4명이 재경 측을 방문, 공동편찬 문제를 협

의했다. 조속한 시일 내 재경 측의 답변 논의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9월 9일에서야 재경 측 인사의 답방이 있었다. 거의 5개월 만에 머리를 맞대는 양상이었다. 재경동창회 모교80년사 김도형(26회) 편찬위원장과 박 실무위원장이 총동창회관 내 모교80년사 편찬위원회에서 총동창회 편집위원 6명과 회의를 가졌다. 이후 양측은 소통하며 이날 협의한 안건을 두고 조율해 왔다.

이제는 공동편찬이란 명제가 꺾일 수는 없다. 발간일 결정 등 협의상의 '암초'도 남아 있지만 풀어나갈 것 못지 않다. 그러나 제작상의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고, 양측의 신뢰 구축이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서 보여주듯 미진한 점이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다. 6만여 동문과 타교 동창회 그리고 지역사회 등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모교80년사 편집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용흠(19회) 용마장학회 이사장, 격려의 시간 가져



이용흠(19회) 용마장학회 이사장이 지난 9월 2일 낮 총동창회관 내 모교80년사 편찬위원실을 방문, 편집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이용흠(19회) 용마장학회 이사장이 지난 9월 2일 낮 총동창회관 5층 모교80년사 편찬위원실을 방문, 편집위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격려 방문에 이병찬(23회) 총동창회 고문과 김대옥(29회) 총동창회장이 함께 자리했다.

모교80년사 편찬 작업이 자료수집과 정리 단계를 거치고 본격적인 집필 단계에 들어간 시점에서 이날 이 이사장의

격려 방문은 편집위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힘이 되었다. 일부 편집위원은 오랜 시간 집필에 매달리다보니 허리와 어깨 통증이 심해지는 등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이 자리서 “모교80년사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총동창회장으로 일할 당시 70년사 편찬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해 늘 아쉬

움으로 남아 있었다. 재경동창회와 끝까지 공동편찬의 희망을 버리지 말아 달라. 명품의 80년사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고문도 재경동창회와의 공동 편찬 희망을 피력하고, “기초자료가 없어 제작에 힘들 것이다. 타교에 비해 훌륭한 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80년사 편찬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동안 큰 도움을 못 준 것 같다.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석(16회) 80년사 편집위원장은 이날 격려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오늘이 자리가 편집위원들에게는 활력소가 될 것이다.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모교사랑기금을 전달하기 위해 총동창회 사무국을 찾은 삼사공사(三思公士) 회원 배대결 윤기갑(이상 13회) 김화옥(14회) 동문도 편집위원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이 이사장은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편집위원 식사비 상당액을 회사했다.

<기사1면에서 받음>

이번 모금운동으로 별일 사업은 모교 재학생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 덕형관 내 역사관 조성, 그리고 35회 졸업생인 이태석 신부 교내 기념공원 조성 등이다. 모두가 벽찬 과제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모금운동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특히 2022년 내년은 모교 개교 80주년을 맞는 해이다. 개교 100주년을 향한 도약을 위해 신발끈을 다시 고쳐 매야 하는 시기이다. 이 3가지 사업은 영광된 ‘개교 100주년맞이’를 위해서라도 성사시켜야 할 과제들이다.

김 총동창회장과 박종찬(25회) 고문이 현재 모금운동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두 전·현 총동창회장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만 해도 동문들과 각기 15차례 안팎의 골프모임을 갖고 있다. 동문회 현안이 자연스레 화제에 오르게 된다. 물론 미리 계산된 것은 아니더라도 이 같은 노력이 담보 상태의 모금운동에 도움이 되겠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모금운동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동문사회의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고, 동기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 개최가 용이해지면 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실효적이면서 절실한 것은 소위 재력가 ‘큰손’들의 적극적인 모금 참여이다.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묘책이 필요하다. 3가지 과제의 실현이 간절하다면, 그만큼의 간절한 모금운동 방법이 있어야 한다.

“집행위 부회장, 모교사랑기금 모금 앞장”

집행위부회장단 회의, 회칙 개정 제안서 집중 논의



지난 9월 13일 오후 총동창회 집행위부회장단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경남중고 총동창회 집행위부회장단 회의(올해 3분기)가 지난 9월 13일 오후 총동창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곽두희(24회) 자문위원장과 박종찬(25회) 고문,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류명석 오민일(이상 31회) 이종휘(32회) 등 집행위부회장 10명 등 모두 16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교사랑기금 모금 현황보고 및 활성화 방안, 총동창회 회칙 개정 제안 설명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총동창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세월이 가면서 체제가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본격 시작한 모교사랑기금 모금운동이 코로나19 4단계거리두기 여파 등으로 정체를 보이고 있다”면서 “총동창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집행위 부회장들이 기금 모금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논의된 사항들을 각 항목별로 소개한다.

▲모교사랑기금 모금 현황보고 및 활성화 방안=이날 회의 하루 전 집계로 전체 액수가 2억8,069만원에 머물렀다는 보고가 있었다. 현웅열(29회) 사무총장은 보고에서 “기금모금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다. 동문사회의 적극적인 호응을 구하기 위해 집행위부회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면>

▲총동창회 회칙 개정안 제안 설명=올해 초 총동창회장 선출과 관련된 회칙 조항 개정 이후 회칙 전반에 대한 손보기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재혁(36회) 일반위 부회장이 이 일을 도맡아 초안을 작성했다. 초안을 두고 현 사무총장과 정밀 검토 작업을 거치고 제안서를 내놓았다. 최 부회장은 “2021년도 회장 선출과정에서 회장의

선출시기 및 임기 시작점을 정한 회칙 일부조항이 상충되는 문제로 내용을 겪었다. 문제 조항을 일부 개정했으나 전반적으로 회칙 내용이 미비하거나, 해석상 시비가 있는 조항들을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초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안서 내용 각 항목별로 자유토론 형식으로 의견을 제기했다. 이 자리서 자구(字句) 수정 및 삭제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총동창회장 재임 시 몇 차례 회칙 개정을 주도하여 각 조항 내용을 훤히 꿰뚫고 있는 박 고문은 이날 제안서 내용에 대해 예리한 지적으로 개정안이 보다 내실을 기하도록 했다.

사무국에서 이날 지적 사항들에 대해 보완작업을 거쳐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이다.(주요 회칙 제안서 내용은 별도의 기사로 소개한다.)

▲제23회 용마골프대회 추진 상황 보고=오는 10월 18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제23회 용마골프대회 준비 상황이 이날 보고됐다. 집행위부회장인 이종휘(32회) 용마골프회 회장은 이 자리서 “이번 대회를 역대 최대 참가자 행사로 만들겠다. 참가자 목표 인원은 60조(組)이다. 집행위부회장단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 사무총장은 “대회 치르는데 2,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협찬이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곽 자문위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행사가 없다는 큰 대회가 열리니 동문 관심도가 높다”고 말했다.

▲경남중고 총동창회장배 리틀야구대회 개최=모교 홍보 차원에서 좋은 기획이라는 참석자 의견이 모아졌다.<관련기사 9면 참조>

▲하반기 행사 일정=△기별야구대회

-경남고와 협의 중이나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울 것 같다. △용마의 밤-오는 12월 9일 오후 6시 서면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 체계 추이에 따라 참가 인원이 조정된다. 방역 당국이 ‘위드 코로나’ 시행 시기를 언제로 잡을지에 달려 있다. 기대가 크다. △기타 행사 안 내-5회 동기회 졸업 7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 9월 27일 개최와 ‘야구의 전설’ 고(故) 최동원(31회) 동문 추모10주기 행사 9월 14일 개최와 관련한 보고가 있었다.

회칙 해석상 논란 소지 없게 명확히 규정

주요 항목 개정 방향과 취지

지난 9월 13일 열린 집행위부회장단 회의에서 검토된 총동창회 회칙 개정 제안서 내용 중 주요 항목을 골라 개정 방향과 취지를 살펴본다. 개정안이 이사회 승인으로 확정되기 이전이라서 개정내용 전체를 기사화하지 않는다.

△제8조(기구)=2개 항목으로 개편하면서, 2항에서 용마장학회의 기구 운영을 구체화하였다.

△제9조(총회의 권한)=‘회장의 선출 및 승인’을 ‘회장 및 감사 선출’로 변경하면서 관련 사항 정리 추진한다.

△제12조(이사회회의 기능)=회장·감사의 총회 선출을 위한 추천 결의를 명시하였다.

△제15조(이사회회의 결의)=명예회원의 자격 취득 및 회원의 자격상실, 동창회 재산 처분 등 중요 결의 시 ‘출석 회원의 2/3이상의 결의’로 하는 동의

▲사무국 보고 사항=△기별분담금 및 야구후원금 납부 현황-일부 기수에서 미납 있어 납부 독려 예정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현황-9월 12일 현재 목표 4,000명의 55% 실적. 각 기수별로 모임이 적어 납부 독려가 용이하지 않은 탓도 있다. 지난해 수준인 3,000명대 달성으로 목표 하향 조정.

▲경남고 야구부 후원 관련=허부남(37회) 집행위부회장이 긴급현안으로 경남고 야구부 재정 악화에 따른 운영 차질에 대해 보고했다. 코로나19로 모교 운동장 사용료(덕형리그 및 사회인 야구) 등의 수입이 단절돼 선수운동복, 야구공 및 배트 등 각종 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허 부회장은 개인적으로 전체 선수 대상 룰페드 기증 사실을 밝혔다.

총동창회는 이 자리서 현재 경남고 야구부 측과 이 사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음을 알렸다.

한편 이날 허 부회장은 이수환(37회) 동문이 운영하는 무바바치킨점에서 30인분의 치킨을 주문 배달시켜 회의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참석자(기수순·직책 생략)=곽두희(24회) 박종찬(25회) 김대욱 김종명 현웅열(이상 29회) 류명석 오민일(이상 31회) 이종휘(32회) 정운성(35회) 박진용(36회) 허부남(37회) 권두성 오희진(이상 38회) 박근태 윤원욱(이상 39회) 전삼록(41회).

절차 강화 조치를 마련하였다.

△제16조(사무국)=회장이 사무총장 등을 해임할 사정이 있을 때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해임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사무총장 무급, 사무국장 유급’을 명시, 급여지급의 근거를 확보하였다.

△제20조(임원의 선출)=임원의 선출과 임기를 구분하여 별도로 꾸렸다. ‘회장·감사는 이사회 추천 결의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명시, 논란의 소지가 없게 하였다.

△제20조 1(임원 등의 임기)=‘회장의 임기를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때부터 차기 정기총회 일자 신임 회장 선출될 때까지 기간(1년)으로 하며 총회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한편 회칙상 동창회관장에 관한 사항은 용마장학회의 정관과 상충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논의를 더 거쳐 확정짓기로 했다.

5회 졸업 7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김병무



김영한



상기중



임성업



진도영

일제→해방→전쟁 ‘혼돈’ 딛고 조국 재건 초석 다진 영웅

모교 발전상에 감동, ‘솔밭수업’ 기억
“80주년 행사 열어 달라” 후배들 기원
정성 모은 모교발전기금 250만원 전달

김병무, 김영한, 상기중, 임성업, 진도영 동문. 이들은 경남중·고 5회 졸업생으로 5회 졸업 70주년기념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석한 ‘영웅들’이다. 90~93세의 나이이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고 자라 모교에 입학했다가 해방을 맞았고, 6·25동란 중에 졸업을 한 세대이다. 이후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 인생을 바치고 오늘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을 넘고 넘어 ‘살아있는 전설’이 된 ‘5결(傑)’이다.

5회는 1945년 3월과 9월 두 번의 입학이 있었다. 3월 입학 당시 태평양전쟁에서 일제의 패전이 굳어지던 때였다. 1년간 휴교령이 내려졌고 동원령이 발동되었다. 수업은 없었다. 공장에 가서 일하고, 솔밭에서 송진 채취로 나날을 보내다 해방을 맞았다. 9월에 입학생을 다시 모집했다. 이후 엄청난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겪다 6·25동란을 맞았다. 수업이 중단되고 교사(敎舍)도 징발되었다. 참전한 친구들도 있었다. 곡절 끝에 솔밭에서 칠판을 걸고 수업하기도 했다. 1951년 7월 3일 졸업식을 가지지 못하고, ‘슬픈 과거’를 간직한 채 전시 대학으로, 사회로 진출했던 5회이다.

지난 9월 27일 오후 4시 30분 총동창회관에서 열린 5회 졸업 70주년기념 홈커밍데이 행사장에 입장한 이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이날 낮 모교 경남중과 경남고를 방문한 탓에 피로한 기색도 있었다. 지팡이를 든 이도 2명이다. 모교 졸업 후 일흔 성상(星霜)을 보낸 세월의 무게가 무거워보였다. 하지만 후배들의 뜨거운 환영에 낮 동안 모교에서 받은 감격이 다시 북받쳐 오르며 금세 경남중고 용마인이 되었다.

이날 행사는 박종기(28회 동기회장) 동문의 유려한 사회로 진행됐다. 상기중 5회 동기회장의 개회선언과 작고 은사님과 동기생에 대한 묵념, 내빈축사가 이어졌다.



5회 졸업 70주년기념 홈커밍데이 경남중 방문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었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선배님들을 크게 환영한다. 수구초심(首丘初心)이란 말처럼 저희에게 경남중·고는 마음의 고향이다. 졸업 7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 학교는 흔치 않다.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선후배님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다짐을 한다”고 말했다.

곽두희(24회) 자문위원장은 “올해 만 70세가 되었다. 제 태어났을 때 졸업한 선배님을 배 영광스럽다. 전쟁을 겪고 시고 오늘의 대한민국 초석을 다지신 분들”이라면서 “잘 꾸려진 동창회관에서 이런 행사를 갖게 돼 감격스럽다.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80주년, 90주년, 100주년 행사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찬(25회) 고문은 “5회 선배님들을 모시고 동창회관에서 이 행사를 가져 의미가 크다. 70주년 행사는 두 번째 인데 전통을 이어가는 명분이 되자”면서 “선배님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90세까지는 건강하게 살아 전통을 살리자’고 이야기하게 되었다. 선배님들의 80주년 행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사(式辭)를 맡은 상기중 동기회장은 행사 개최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모교 입학 후 혼란기에 옮겨다니던 학사(學舍)의 추억을 회상했다. “전쟁이 나서 일부 동기생은 군대 가서 전사하기도 했고, 솔밭수업에서 흑판을 달아놓고 수업했던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났다. 감개무량하다. 동창회관에서 이 같은 행사를 갖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동문들을 만나니 반갑다. 모두



5회 동기생들이 경남중 교정의 김영삼(3회) 전 대통령 흉상을 둘러보았다.



5회 동기생들이 경남중 ‘용마역사실’을 둘러보고 있다.

건강하시라”고 말했다.

축하케이크는 5회 졸업 70주년을 상징적으로 기념하려 송편 70개와 초 5개로 장식했다. 다섯 동기가 함께 칼을 들어 눌렀다.

이어 진 동문의 동기소개가 진행됐다. 진 동문과 임 동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김병무 동문은 중·고교 교장으로 각각 은퇴한 교육자이다. 상 동문은 서울대를 나온 치과원장으로 현재 은퇴 상태이고, 김영한 동문은 재학시절 농구선수였으며, 현재 재경동기회장으로 6·25 참전 용사로 소개되었다. 진 동문

은 “지금도 차를 운전하고 다닐 정도로 건강하다. 동기생들이 ‘백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병무 동문은 이 자리서 “분에 넘치는 환대를 받아 너무 감사하다. 경남중 고인인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각계의 기라성 같은 동문들의 눈부신 활약이 긍지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5회 동기회는 모교발전기금 250만원을 김 총동창회장에게 전달했다. 총동창회는 5회 참석자에게 꽃다발과 정관장 선물을 증정했다.

<기사 5면에 넘김>

5회 졸업 7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살아있는 전설 5걸(傑)’, 후배들 환대에 감격…환한 웃음



5회 졸업 7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경 남고 방문 행사에서 용마상 앞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5회 동기생들이 꽃다발을 들고 덕형관을 배경으로 함께 섰다.



5회 동기생들이 호국영웅명비 앞에서 동기생 이름을 찾고 있다.



5회 졸업생 김영한 동문이 호국영웅명비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 앞에서 인증샷을 찍었다.



경남고 덕형관 내 도서관을 찾은 5회 동기생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기사 4면에서 받음〉

교가 제창에 이어 총동창회서 마련한 만찬이 펼쳐졌다. 식사 후 회관 정문 앞에서 후배들의 전송을 받으며 5회 영웅들은 귀갓길에 올랐다.

이날 기념식 행사는 오전 11시께부터 시작되었다. 강서지구동창회의 ‘5회 삼총사(상기중, 임성업, 진도영 동문)’는 강서지역 이수관(38회) 사무국장이 모셔왔다. 김병무 동문도 강서지구 박진수(45회) 동문이 동래 자택으로 가서 함께 왔다. 김영한 동문은 전날 부산으로 와서 하룻밤 유숙하고, 경남중으로 바

로 향했다.

총동창회관 5층 사무실을 찾아온 네 동문은 환담을 나누다가 1층 우미옥 식당에서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 모교 80년사 편찬위원회 김형석(16회) 편집위원장과 김기열(23회) 전섭태(25회) 이요섭(27회) 편집위원이 함께했다. 식사 후 곧바로 경남중을 향했다.

일행이 경남중에 도착하니 김영한 동문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반가운 해후(邂逅)였다. 김미정 경남중 교장 등 교직원의 환대 속에 모교 방문 기념 촬영을 갖고 용마역사실을 둘러봤다.



5회 동기생들이 졸업 70주년 기념식장서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김대욱 총동창회장이 상기중 5회 동기회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상기중 5회 동기회장이 모교발전기금을 김대욱 총동창회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경남중에서 간식거리 기념선물을 마련해 전했다. 김영삼(3회) 전 대통령 흉상 앞에서도 기념사진을 찍었다.

경남중을 뒤로 하고 경남고로 향했다. 백영선 경남고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나와 환영했다. 용마상과 덕형관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호국명비를 둘러보고 가슴 아린 추억들을 회상했다. 덕형관 내 도서관에서 간소한 모교 방문 환영식이 열렸다.

백 교장은 이 자리서 “5회 선배님들의 모교 방문을 환영한다. 조출한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총동창회서 많은 지원

을 해주고 있다. 선배님들이 100세 이상 사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5회 동기생들은 “환영해 줘 감사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병무 동문은 “대신동이 변두리가 돼 교장이 힘들 것이다. 고생한다”고 말했다. 임 동문은 “아들 둘이 경중·경고를 나왔다. 초등학교 제자들이 많이 경중·경고로 진학해 훌륭한 인물들이 되었다. 모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행은 모교방문을 마치고 총동창회관으로 향했다.

〈이모저모〉

호국명비에 자신의 이름 확인

○…경남고 ‘용마 6·25참전 호국명비’를 찾은 5회 영웅들 중 김영한 동문은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했다.

참전용사였던 임 동문은 자신의 이름을 몇 번이나 찾더니 없음을 알고 아쉬워했다. 참전용사 발굴이 완벽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임 동문은 갓 결혼한 아내를 두고 전선으로 달려갔던 애국용사였다. 이 자리서 5회 동문들은 명비에 새겨진 동기생 이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동기생 회원명부를 펼쳐보며 검은색 사선의 동문들 이름을 불러보기도 했다.

모교 배지 보고 “나도 5회 용마”

○…김병무 동문의 이번 참석 또한 우연이 가져온 기적이다. 모교 배지를 가슴에 단 김기열(23회) 동문이 도시철도

를 탔다. 거기서 배지를 본 김병무 동문이 자신이 5회 동문임을 밝혔다. 김기열 동문은 “선배님!”하고 손을 잡았다. 알고 보니 한 아파트 주민이었다. 그 자리서 5회 70주년 기념행사를 알렸고, 참가 약속을 받았던 것이다.

강서지구 우정과 의리 돈뎌

○…이번 행사에서 5회 삼총사를 보유(?)한 강서지구는 교통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원로 선배의 모교발전기금 조성에 보탬이 되고자 회비 50만원을 지원하는 우정을 과시했다.

한편 이날 행사 측은 육한수(46회) 동문이 협찬했다.

역까지 동문 배웅 ‘우정의 무대’

○…총동창회관 앞 송별의 시간에 또 한 번 감동이 연출됐다. 서울 귀갓길이 바쁜 김영한 동문이 부산역을 향한 차에 타자 강서 삼총사가 함께 올랐다. 서울까지 먼 길 가는 친구를 역까지 가서 배웅해주겠다는 마음이었다. 90 연세를 잇는 우정의 무대였다.

경남중 7, 경남고 5번째 ‘문패’ 영욕의 80년 세월

경남중·고등학교 교명 변경

5년제 부산제2공립중 출범→6년제 경남공립중→경남중
이후 3년제 학제로 바뀌면서 부산서중·부산제1고로 분리
부산서중→경남중→토성중→경남중, 부산제1고→경남고 변경

모교 경남중·고등학교의 첫 교명(校名)은 ‘부산제2공립중학교’이다. 일제 식민통치 말기인 1942년 4월30일 5년제로 인가를 받아 개교했다. 조선총독부 산하 문교 당국이 한·일 학생 공학으로 출범시킨 데는 속셈이 있었다. 당시 부산부(府)에는 한국인 학생만 다니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동래중학교와 상업학교인 부산제2상업학교(옛 부산상고, 현 개성고 전신), 일본인 학생만 다니는 부산중학교(현 부산중·고교 전신)가 있었다. 일제는 이 같은 일선 교육기관 현실을 감안해 한·일 자녀 공학제도를 도입했다. 먼저 반일(反日) 감정을 누그러뜨리면서, 다음은 ‘내선일체(內鮮一體)’목표를 효과적으로 정착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한 병력과 근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하려고 학제를 4년제로 단축 발표, 시행했지만 머잖아 패망했다. 따라서 부산제2공립중학교 교명은 ‘일제 식민통치 36년간 치욕’과 함께 역사의 뒀안길에 묻혔다.

첫 교명을 내걸고 역주한 부산제2공립중학교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거치고, 같은 해 9월 9일 진주한 재조선 미육군사령부군정청(이하 미군정) 초기까지 생명을 이어왔다. 이 같은 환경 때문에, 첫 교명은 제1기와 제2기 두 차례로 나누어 이어졌다.

제1기는 1942년 4월 30일 개교를 기점으로 해방까지였다. 해방 당시 4학년(현 고1)이었던 제1회는 이 교명 아래서 안팎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어 독무대를 차지했다. 제2기는 해방 직후부터 미군정 중기인 1946년 3월 5일까지였다. 역시 졸업을 앞둔 제1회가 전성기를 누렸다. 특히 이 교명이 해방공간 초기까지 이어온 데는 곡절이 있었다. 이때는 일선교육 현장에서 한·일 실무간 인수인계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학제가 6년제로 변경됨에 따라 바로 ‘부산제2공립중학교’ 교명은 폐기되었다. 제1회 재학생들에게 회한과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두 번째 교명 ‘경남공립중학교’가 새로 태어났다. 해방공간인 1946년 3월 6일이었다. 이 교명이 획기적 전환기를 열었다. 1945년 10월 29일 부임한 안용백(安龍伯) 초대교장은 해안으로 잡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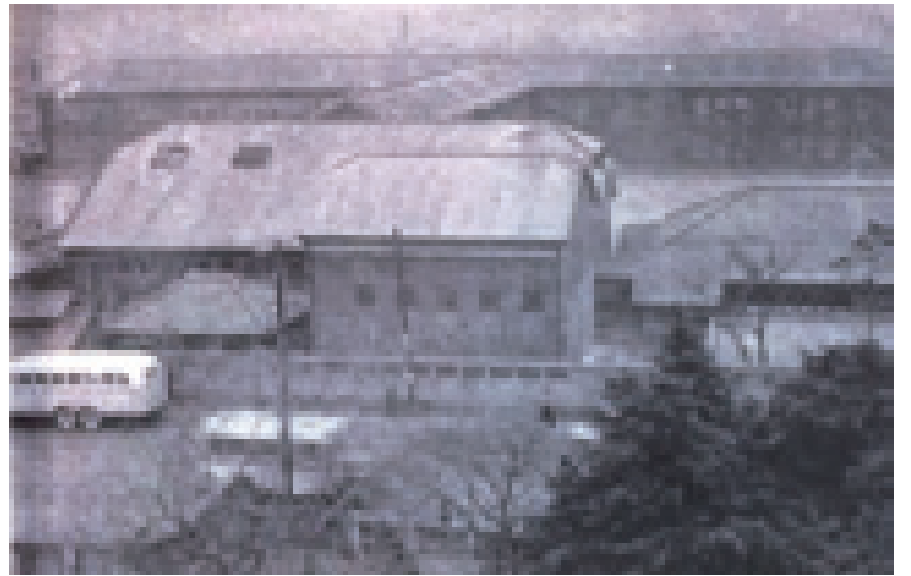
1942년 모교 1회 학생 입학식 기념사진. 사진 오른쪽 윗부분에 ‘釜山制二公立中學校聯盟(부산제2공립중학교연맹)’이란 글이 보인다. 1회 졸업생 고(故) 엄태현 동문의 부인 하선남 여사가 보내온 자료이다.

기회를 일약 도약으로 선순위(先順位)시켰다. 당시 우리 재학생은 소수였다. 해방 전 480명이던 인원이 일제 패망으로 일본인 교우 330명이 제 나라로 귀환했기 때문이다. 우리 재학생은 교사(校舍)가 없어 셋방살이 수업 신세였다. 교사 또한 태부족이라 충원이 시급했다. 안 교장은 지장(智將)이자 용장(勇將)이었다. 부임하자마자 △교명 변경 △최우수 교사 영입 △편입생 선발 등 3대 과제를 적극 추진했다.

특히 이상철·이창갑 두 교감을 비롯해 최우수 교사 10여 명을 영입했다. 이들은 ‘경남중학교’를 일류반열에 올려놓는 데 주춧돌이 되었다. 이 같은 시대적 영욕(榮辱)을 헤쳐 나오는 사이 경남중학교는 일곱 차례, 경남고등학교는 다섯 차례 문패를 바꿔 달면서 80년 역사와 전통을 쌓았다.

그 중심축에는, 명예를 선양해온 잠재력이 햇불을 밝혔다. 바로 선봉에 나선 기라성 같은 훌륭한 교사들을 비롯해 재학생과 학부모, 국내외 동문과 가족, 성원해온 사회 각계 인사 등이다. ‘한 몸이 된 우리’는 사명감으로 엮은 날줄과 결속력으로 다진 씨줄을 서로 강건하게 교직시켜 자긍심을 펼쳐오고 있다. 부단한 ‘현재진행형 동량(棟樑)’

오는 2022년 4월 30일 모교 개교 80주년을 앞두고 모교사 편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경남중·고등학교가 1942년 4월 30일 개교에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격동의 세월 80년 역사를 기록하고,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기억하며, 그 속에서 형성된 경남중고인(人)의 정신과 전통을 다시금 확인하여, 이어지는 후배세대에게 전달하고 계승하는 작업이다. 이 숭고한 과업의 완성된 일부 내용을 미리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현 경남중 자리에 있던 1952년도 부산서중학교 전경. 10회 동문 앨범에서 발췌.

을 자임하며 도약을 멈추지 않는다.

안용백 교장은 교명 변경을 적극 추진했다. 자유민주주의 교육정신인 인성교육을 펼쳐나가는 데 앞장섰다. 교명에서도 이 정신이 구현되기를 열망했다. 당시 ‘중학교’란 명칭을 쓰기 전에는 ‘高普(고등보통학교 약칭)’로 불렀다. 그래서 새 교명에 ‘慶南(경남)’을 앞세우려고 고집스레 애썼다. 그의 해안이 기회를 열었다. 그는 교무회의를 주재하고 새 교명 선정을 주제로 삼았다.

“우리 학교는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부산시에 있다”며 “부산은 대한민국의

제2도시요 경상남도의 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京城·경성)의 京畿(경기)를 제1고보로, 平壤(평양)을 제2고보로, 大邱(대구)를 제3고보로 불렀다”며 “인구 20만여 명의 부산인데, 계속 ‘제2공립중학교’로 불려져서는 ‘1등 학교’로 각인될 수 없다. ‘제4고보’로 연상시키려면, 부산보다 큰 慶尙南道에서 ‘慶’과 ‘南’을 각각 집자(集字)해 교명을 ‘慶南’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경청한 모든 교직원들이 박수로 선정을 결의했다. <기사 7면에 넘김>

안용백 교장, 교명 변경 등 개혁 추진...명문 반열 올려

<기사 6면에서 받음>

이를 문교 당국에 건의한 결과 “새 교명에 ‘慶南’을 넣어 사용해도 좋다”는 회신을 받았다. 바로 ‘부산제2공립중학교’ 폐교 신청을 한 후 ‘경남공립중학교’ 교명을 내걸었다. 이는 강압적 식민통치교육 허울을 불사르고, 비로소 자유민주교육의 정체성을 발현하는 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충정이 응집된 결과였다. 이 교명은 제1~4회 재학생들이 사용했다.

세 번째 교명은 ‘경남중학교’이다. 6·25전쟁 직전인 1950년 6월 1일 개명되었다. 두 번째 교명 중에 있는 ‘공립’을 버렸다. 일제가 강요했던 ‘관계 뉘새가 풍긴다’는 이유였다. “교명에서 ‘공립’을 빼버리고 나니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 학교의 정체성이 확연해졌다”는 게 중론이었다. 그러나 이 교명은 단명했다. 제5회에서만 사용했다. 네 번째 교명은 1951년 9월1일 바뀌었다.

학제가 ‘중·고교 각 3년제’로 분리됨에 따라 경남중학교는 생소한 다른 두 이름을 갖고 갈라섰다. ‘형제간 학교’였다. ‘부산서중학교’와 ‘부산제1고등학교’로 거듭 태어났다. 부산서중 때는 제9~10회가, 부산제1고 때는 제6~7회가 각각 학창시절을 누렸다.

다섯 번째 교명이 탄생했다. ‘형제간 학교’ 이별 22개월여 만이었다. 1953년 7월 10일 부산서중은 신청한 새 교명 승인을 받았다. 즉 전통을 자랑하는 ‘경남중학교’로 교명이 다시 부활됐다. 며칠 후 7

월 14일, 부산제1고 역시 학부형과 학생들의 교명환원 설문조사 자료를 첨부하여 경남도로 교명변경을 신청했고, 문교부 장관은 8월 19일 지령(指令) 제1430호를 통하여 ‘경남고등학교’로의 변경을 승인했다. 본교 졸업생들이 지금까지도 자랑스럽게 가슴에 새기고 있는 교명은 이렇게 탄생하였다.

그런데 경남중학교는 교명을 다시 바꿔야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5·16 군사정권(이하 권위주의정권)이 뜬금없이 ‘이른바 일류로 불리는 중학교 이름을 모두 변경하라’는 지시 때문이었다. 1969년 10월 초순 문교부는 전국 교육위원회에 재빨리 해당 중학교에 교명을 바꾸게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른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교명 및 학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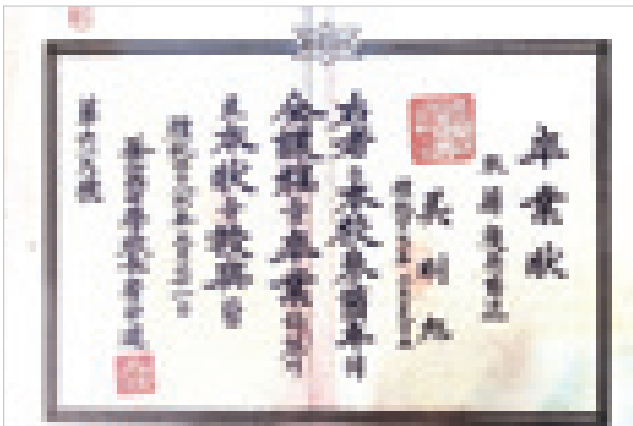
1942년 4월 30일 개교한 이래 경남중학교는 6번, 경남고등학교는 4번 교명을 변경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경남중·고 졸업생은 대한민국의 동량으로 다방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교명 변경과 변화된 학제 등은 아래와 같다.									
교명·학제	부산제2공립중학교 한일공학(韓日共學), 5년제	부산제2공립중학교 (4년제)	경남공립중학교	경남공립중학교 (6년제)	경남중학교	부산서중학교 (3년제 중학교, 9회, 10회)	경남중학교 (11회~28회)	토성중학교 (29회~49회)	경남중학교 (50회~)
						부산제1고등학교 (3년제 고등학교, 6회, 7회)	경남고등학교 (8회~)		
연도	1942.4.30.	1943.3.	1946.3.6.	1946.9.1	1950.6.1	1951.9.1.	1953.7.10.	1970.3.1	1992.3.5



부산제2공립중학교 기숙사 시절의 모습. 가운데 앉은 이가 일본인 생물 교사이자 기숙사 사감. 1943년도 자료이다. 1회 졸업생 고(故) 엄태현 동문(뒷줄 한가운데)의 부인 하선남 여사 제공.



하근수(7회) 동문의 부산제1고등학교의 졸업증서. 추월영 교장 명의이다(사진 왼쪽). 오강욱(10회) 동문의 부산서중학교 졸업장이다. 이갑도 교장 명의이다.



실시에 따른 일류 중학교 교명 변경’ 조치였다. 사회적 혼란이 빚어졌다. 전국의 해당 중학교 및 학부모 측에서 선처를 건의했으나 서슬 시퍼런 권위주의정권은 막무가내였다. 결국 부산시 교육위원회는 관련 중학교에 ‘교명 변경’ 공문을 보냈다. 경남중은 연일 고심한 끝에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명창안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는 부장선생들을 2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예비교명 3개씩을 발굴하도록 했다. 그룹별 예비교명은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제1그룹에서는 △쌍백(雙白)중학교 △토성(土城)중학교 △남항(南港)중학교를 선정했다. 첫 번째 쌍백(雙白)중학교는 ‘쌍백(雙白)은 경남중 상징인 쌍백선을 강조하는 한편 경남중 전통

을 잇는 정신과, 쌍백이 조화·영원·협동성을 강조한다’는 뜻을 내세웠다. 이 교명은 교직원과 동창회 측 일부 동문들이 찬성했다. 두 번째 토성(土城)중학교 경우 ‘옛날 부산 토성이 있던 지역을 상징하며, 현 토성동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역적 의미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 남항(南港)중학교는 ‘한반도 남쪽 항구에 자리 잡은 학교’라는 뜻을 담았다고 했다.

제2그룹에서는 △경원(慶元)중학교 △경신(慶新)중학교 △경인(慶仁)중학교로 압축했다. 첫 번째 ‘경원(慶元)중학교’는 뜻풀이에서 ‘경(慶)은 경남중학교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고, 원(元)은 으뜸과 근본을 뜻하며, 만물을 육성하는 덕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경신(慶新)중학교’ 경우 ‘경(慶)은

앞의 뜻과 같고, 신(新)은 새롭다는 뜻으로, 새롭게 단장해서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경인(慶仁)중학교’는 ‘경(慶)은 앞의 뜻과 같고, 인(仁)은 어진 사람과 덕이 많은 사람으로 홍익인간의 이념을 널리 펼쳐나가겠다는 신념을 담았다. 다시 말해 경남중학교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는, 덕이 높은 사람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뜻을 내세웠다’고 했다. 경남중학교는 1969년 11월 7일 앞의 교명을 부산시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일주일 후 교육위원회에서는 6개 예비교명 중 뜻밖에도 ‘토성중학교’가 선정되었다는 회신을 보냈다. 학교에서는 실망을 안은 채 이방인(異邦人) 같은 ‘토성중학교’란 간판을 내걸었다. 교직원을 비롯해 재학생과 학부

모, 국내외 동문 및 가족 등은 “평준화 강권이 자유로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남중학교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게 되었다”고 개탄했다. 이 ‘토성중학교’ 교명은 무려 20여년 이란 먼 길을 행군했다. 이 기간 중에는 제29~49회가 면학

증진에 열정을 쏟았다. 이 무렵 부산에서 ‘일류’로 회자된 다른 남녀 중학교도 같은 처지였다. 부산중은 ‘초량중학교’로, 경남여중은 ‘수정여자중학교’로, 부산여중은 ‘은하여자중학교’로 각각 교명을 바꿔 달았다. 그러다가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인 1992년 3월 5일 꿈에도 못 잊던 ‘경남중학교’ 교명을 되찾았다. 일곱 번째 교명이었다. 술한 파란을 겪어온 이 교명은 제50회부터 현재까지 30여년을 이어오면서 명예를 드높이고 있다.



글=이요섭(27회)
경남중고 총동창회
모교80년사 편찬위
원회 편집위원

용마회·평마회 활동 중 후배 중심 용마골프회 창립

서울 1971년, 부산 1974년 각각 용마골프대회 시작

총동창회 골프 동호회 발전사

요즘 웬만한 동기회에는 골프동호회가 활동할 정도로 골프라는 운동이 보편화 되어 있지만, 우리 총동창회 내에 골프 모임이 최초로 결성됐던 때는 50년 전인 1971년 말이었다. 40세 초중반에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한창때의 1~5회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재경동창회에서 먼저 발족했다. 그 해 11월 28일 한양컨트리클럽에서 제1회 용마골프대회를 가진 후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용마회'를 결성하고 고(故) 김택수(1회) 전 총동창회장을 초대 용마회장으로 추대했다.

서울에서 부정기 월별로 용마골프대회를 진행하며 동문들의 우의를 다져가던 중, 부산과 경남에 사는 골프 동호동문 40여 명도 3년 뒤인 1974년 7월 20

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김 전 총동창회장이 기증한 순은제(純銀製) 우승배와 푸짐한 상품을 걸고 제1회 용마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경기 후, 창립총회를 열어 동호회의 명칭을 '용마회'로 통일하고 김 전 총동창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면서 초대회장으로 송두호(3회) 동문을 선출했다.

모두가 직장생활에 바쁜 시기였으므로 주말을 이용해서 시합을 가졌는데, 서울 용마골프대회는 경기도의 여러 골프장을 순회하며 개최한 반면, 부산 용마골프대회는 거의 부산CC 혹은 동래CC 두 곳에서 진행됐다. 부산 용마회 회원들은 당시 부산CC와 동래CC 회원권 한쪽 또는 양쪽을 갖고 있었는데, 이중 동래CC 회원권을 가진 회원들이 '평마회(평일에 만나는 용마)'를 결성해서 친목을 다졌다. 다수의 회원들이 중복되어 있던 용마회와 평마회는 이후

2018년까지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용마골프대회의 진행을 봉사해왔다.

그러던 2019년 초 골프동호회에 젊은 후배들의 영입이 더딘 실정에서, 조직활성화를 추진하던 박종찬(25회) 당시 총동창회장은 용마회와 평마회 선배들과 협의하고 자문을 얻어 후배들이 주축이 되는 총동창회 차원의 공식 골프동호회인 '용마골프회' 발족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용마회와 평마회는 일반 동호회로서 변함없이 운영되어 오고 있다.

부산CC에서 용마회는 주말 모임을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시간으로 옮겨 12명의 회원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심신을 단련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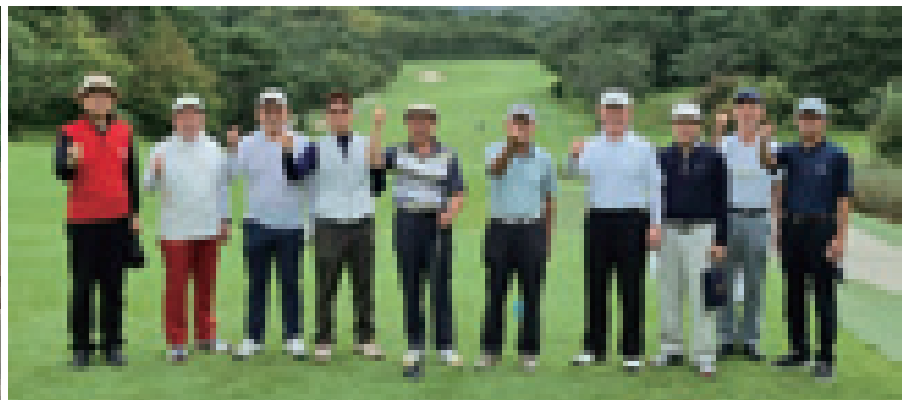
▲용마회(12명)=△회장 김준연(17회) △총무 이성엽(34회) △최한성(9회) 서정승(17회) 정량부(17회) 김사권

(18회) 이부식(23회) 이영훈(23회) 노상우(24회) 송영근(25회) 김동수(28회) 팽현준(32회).

평마회 역시 동래CC에서 매월 첫째 화요일 오후 시간을 활용하여 14명의 회원들이 선후배간의 우애를 다져가고 있다.

▲평마회(14명)=△회장 박장현(26회) △총무 박종기(28회) △서정승(17회) 장홍의(19회) 김도살(22회) 변대석(22회) 이부식(23회) 노상우(24회) 김형국(26회) 김동수(28회) 옥상곤(28회) 김종식(28회) 팽현준(32회) 이성엽(34회).

골프가 대중적이지 않던 70년대에 과감히 필드에 모였던 선배들의 도전정신을 계승한 '용마골프회'는 김대옥(29회) 초대회장이 2019년 7월 30일 김해정산컨트리클럽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 이어서 왕성한 추진력을 지닌 이종휘(32회) 제2대 용마골프회장은 오는 10월 18일 제23회 총동창회장이 생탈 용마골프대회를 64개조 2백56명이나 출전하는 대기록 아래 성황리에 개최한다. <글=편집위원 박종기(28회)>



경남중고 동문 골프모임으로 용마회(사진 왼쪽)와 평마회가 있었다.

제23회 용마골프대회 10월 18일 부산CC 개최 64조 256명 골퍼, 환상의 샷 날린다

경남중고 총동창회 주최, 용마골프회 주관 제23회 총동창회장기 생탈 용마골프대회가 오는 10월 18일(월) 금정구 노포동 소재 부산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지난해보다는 한달여 늦은 만추의 계절에 골프의 향연을 펼친다.

이번 대회는 모두 64조 256명이 참가(9월 30일 마감), 역대 최다 참가의 기록을 갖게 되었다. 16회부터 54회까지 35개 기수가 출전, 최다 기수 참가 기록도 세웠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와 같이 정부의 방역지침상 동시출발(shot-gun 방식), 기념식, 시상식 겸 만찬 등의 행사는 갖지 않는다. 지난 대회처럼 각 조별 티오프로 치른다. 시상식은 대회 직후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대회 운영 방식은 참가인원을 고려 2개부로 나눠서 진행한다. 1부는 오전 7

시부터 19개조가, 2부는 오전 11시부터 45개조가 티오프한다. 참가신청 때 희망 티오프 1, 2부를 신청 받았다.

이번 대회 참가비는 각 개인별 3만원으로 식대용이나 만찬 및 시상행사가 없어 당일 환불 처리할 예정이다. 개인 부담 경비는 그린피(카트비 포함) 13만원(원래는 172,500원이나 총동창회서 42,500원을 지원한다)과 캐디피 13만원(조별) 등이다.

대회는 기별대항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치러진다. 개인전은 A조 1~35회, B조 36회 이하로 나뉜다. 단체전은 스트로크 방식으로 3위까지 시상하고, 개인전은 뉴페리어 방식으로 A·B조 각 우승, 준우승, 3위, 롱기스트, 니어리스트를 시상하고, 메달리스트는 스트로크 방식으로 선정한다. 이벤트 시상으로 홀인원상(벤츠 승용차-유재진 22회 동



총동창회 사무국에서 열린 용마골프대회 조편성회의 모습.



용마골프대회 준비위원들이 이수환 동문 치킨가게에서 원정회의를 가졌다.<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문 제공)과 최다버디상 등이 있다. 입상자 전원에게 부상을 시상한다.

참가자에게는 기념타월, 고급선크림 등

을 선물한다. 당일 골프장 입장 시 행운권을 배포하며 운동을 마치면 당첨자는 곧바로 경품을 찾아가도록 했다.

‘경남중고 총동창회장배’ 리틀야구대회 창설된다

부산·경남 16개팀, 10월 28~31일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서 열전

경남중고 총동창회장배 부산·경남 리틀야구대회가 창설된다. 지난 9월 13일 오후 총동창회관에서 열린 집행위부회장단 회의에서 이 안건이 상정돼 만장일치의 승인을 받았다. 다음날인 14일 오후 총동창회 집행위부회장 일부와 사무국팀이 부산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를 방문, 협회장 정신(47회) 동문을 만나 대회 개최 일정 등을 상의하였다. 현응열(29회) 사무총장과 류명석 오민 일(이상 31회) 오희진(38회) 집행위 부회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 등이 참

석했다. 이 자리서 정 협회장은 리틀야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자신하며, 모교는 물론이고, 지역의 야구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회의 주최는 경남중고 총동창회로 하며, 주관은 부산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와 경남도야구소프트볼협회가 맡는다. 정 협회장은 개인기업 명칭을 딴 ‘효창수산배 리틀야구대회’를 3회째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어 대회 운영면에선 강한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참가팀은 모두 16개 리틀야구단으로,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해운대구 양산시 양산용촌 등 각 지역 대표팀이다. 지난 10월 6일 총동창회관에서 가진 출전팀 대표자회의에서 경기일정과 대진표가 확정되었다.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28~31일, 기장 현대차드림볼파크 리틀야구장 및 소프트볼구장에서 열린다.

이 대회 창설의 아이디어는 경야회에서 나왔다. 경야회 조용철(38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얼마 전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을 만나 이 대회 창설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고 내락을 받았다. 그동안 우수학생의 모교 진학을 위한 학교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그 방안찾기가 경남고 재학생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과 병행해서 모색되던 중이어서 시의적절한 제의였다. 이 대회 창설은 효과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중고의 ‘명문’ 재인식과 더불어 학교 이미지 수준 향상, 모교의 야구부 인재 스카우트에 긍정적 기능 작용과 야구부 발전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이 대회 소요예산을 1천만원대로 가능하고 있어, 거둘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할 때 매우 높은 가성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 1천만원은 야구 애호 동문들의 성금과 총동창회 예산으로 짜여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총동창회장은 대회 창설에 즈음하여 “이 대회가 학교 홍보에 큰 도움이 되어 모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면서 “순조로운 대회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경야회 회장은 “학교 이름을 걸고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회이기에 역사적인 대회이며 경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중고 총동창회장배 부산·경남 리틀야구대회 출전팀 대표자회의가 지난 10월 6일 오전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아래 작은 사진은 리틀야구대회 준비모임.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수시 기부 명칭 부여자 협찬 기여도 통계

협찬금은 사무국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만 통계에 넣습니다.

2021년 9월 29일 작성

다이아몬드		5억원이상		0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 액		
1					

루비		3억원이상		0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 액		
1					

사파이어		2억원이상		1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 액		
1	25	박 종 찬	1억4000만원	1억200만원	

에메랄드		1억원이상		5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 액		
1	11	오 완 수	1억원		
2	23	김 영 기	1억2300만원		
3	29	김 대 욱	6900만원	1억원500만원	
4	30	최 우 철	1억700만원	500만원	
5	33	박 명 진	1억300만원		

플래티늄		5천만원이상		12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 액		
1	13	이 경 재	5100만원		
2	16	송 규 정	5400만원	100만원	
3	17	최 만 식	5000만원		
4	18	김 길 제	5200만원		
5	19	이 부 성	5000만원		
6	22	유 재 진	6400만원		
7	24	박 홍 규	5000만원		
8	25	김 진 철	6400만원		
9	26	박 상 호	5050만원		
10	30	윤 성 덕	6350만원		
11	37	허 부 남	5400만원	100만원	
12	38	권 두 성	7200만원		

골드		3천만원이상		22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 액		
1	9	조동훈(미)	3056만원		
2	15	김 경 일	4000만원		
3	16	엄 중 원	3000만원		
4	19	이 용 흠	4150만원		
5	20	박 용 덕	3100만원	100만원	
6	21	손석보(미)	3064만원		
7	23	김 중 광	3100만원		
8	25	서 병 수	3000만원		
9	27	박 치 호	4000만원		
10	28	백 영 호	3200만원		
11	29	박 성 철	3500만원		
12	30	김 현 태	3250만원	100만원	
13	31	박 중 호	3350만원		
14	31	홍 성 수	3320만원		
15	33	김 법 영	4250만원		
16	35	장 인 화	3300만원		
17	36	박 진 용	3150만원		
18	38	정 재 형	3050만원		
19	39	박 근 태	3140만원		
20	40	우 영 환	3500만원	100만원	
21	44	탁 정 환	3400만원	100만원	
22	47	정 신	3210만원	30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26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 액		
1	3	송 두 호	1000만원		
2	8	박 동 렬	1000만원		
3	10	조 양 제	1000만원		
4	12	남 기 용	1000만원		
5	15	손 부 흥	1500만원		
6	15	천 신 일	2430만원		
7	15	한 해 수	100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26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 액		
8	17	이 세 복	1000만원		
9	17	최 성 호	1000만원		
10	19	황 태 원	1000만원		
11	20	김 형 오	1000만원		
12	20	허 규 판	1000만원		
13	21	강 창 수	1700만원		
14	21	전 재 호	1000만원		
15	22	김 학 균	1000만원		
16	22	박 재 상	2000만원		
17	22	장 성 덕	1000만원		
18	22	장 성 복	1000만원		
19	22	허 범 도	1000만원		
20	28	노 영 현	1400만원		
21	30	정 경 목	1000만원		
22	32	이 중 휘	710만원	1300만원	
23	33	이 순 환	1000만원		
24	33	최 웅 남	1300만원	500만원	
25	34	박 철 웅	500만원	550만원	
26	34	이 진 호	1250만원	550만원	

브론즈		5백만원이상		42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 액		
1	7	김 삼 현		500만원	
2	8	김 봉 길	500만원		
3	17	김 동 수	500만원		
4	17	윤 성 욱	500만원		
5	17	조 증 언	500만원		
6	19	김 봉 호	600만원		
7	19	장 홍 의	600만원		
8	20	김 태 영	500만원		
9	20	박 병 철	500만원		
10	23	이 상 수	500만원		

브론즈		5백만원이상		42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 름	금 액		
11	25	김 익 수	700만원	100만원	
12	25	박 세 철	530만원	50만원	
13	25	손 기 천	550만원		
14	25	송 정 규	550만원		
15	25	이 명 철	710만원		
16	26	김 상 현	500만원		
17	26	박 재 욱	500만원		
18	26	박 효 대	500만원		
19	26	하 원 규	500만원		
20	27	김 태 우	550만원		
21	27	문 두 찬	600만원		
22	28	구 영 소	500만원		
23	28	이 원 철	900만원		
24	28	최 강 호	500만원		
25	29	이 석 조	600만원		
26	30	김 해 곤	700만원		
27	30	윤 인 태	610만원		
28	30	이 명 건	530만원		
29	30	이 학 수	700만원		
30	30	허정택(미)	615만원		
31	31	남 기 태	700만원		
32	31	류 명 석	660만원	20만원	
33	31	오 민 일	600만원		
34	31	이 병 태	600만원		
35	31	정 철 수	500만원		
36	34	이 재 완	550만원		
37	39	백 기 현	810만원	50만원	
38	41	김 정 태	100만원	410만원	
39	41	이 양 결	800만원		
40	41	최 영 준	100만원	410만원	
41	44	안 병 규	600만원		
42	64	표 중 빈	500만원		

선박, 산업기계 등 각종 모형류 생산 “경쟁력 앞서가”

“활력과 혁신”
용마인의 삶터 ⑦

한국과학모형 사장
박형규(43회) 동문

-우 선 (주) 한국 과학 모형 (이하 KOSMO)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KOSMO는 1999년 2월에 설립됐으며, 현재 종업원은 12명이고 2020년 기준 년 매출은 12억원 정도입니다. 작업장은 모두 200평이고, 장비와 설비로는 모형가공에 필요한 CNC 절단기, Sawing Machine, 선반, Milling&Drilling Machine, 3D 프린터 등이 있으며 설계실, 목공실, 도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생산품은 선박, 해양플랜트, 산업기계, 엔진, 공장시설, 하역장치, 전차, 장갑차, 고속열차, 특수차량, 수조시험용 구조물, 프로펠러 등에 관한 모형류(Model, Mock-up)입니다.

고객사로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여러 조선회사들과 방위산업체, 주요 대학과 국책연구기관이 있으며 국립해양박물관, 국립부산과학관, 해군박물관 등과도 빈번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박 사장님의 개인 프로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가 창설되던 1989년 첫 입학생입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딴 뒤 한국기계연구원에 취직해서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KOSMO를 설립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영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서 부산대 경영대학원 MBA과정도 수료했습니다. 사업에 흥미가 점점 늘어서 2008년에는 서핑보드를 수입 판매하는(주)마린스포츠도 설립해서 운영 중이지만, 본업은 어디까지나 모형제작입니다.

-박 사장님께서 어떤 동기가 있어서 이 사업을 경영하시게 되었습니까?

▲70년대 산업개발시기에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과학자 또는 공학자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 꿈을 키우며 학창생활을 보냈는데 마침 새로이 등장한 항공우주공학과가 눈에 들어와 “이거다!”하고 바로 진학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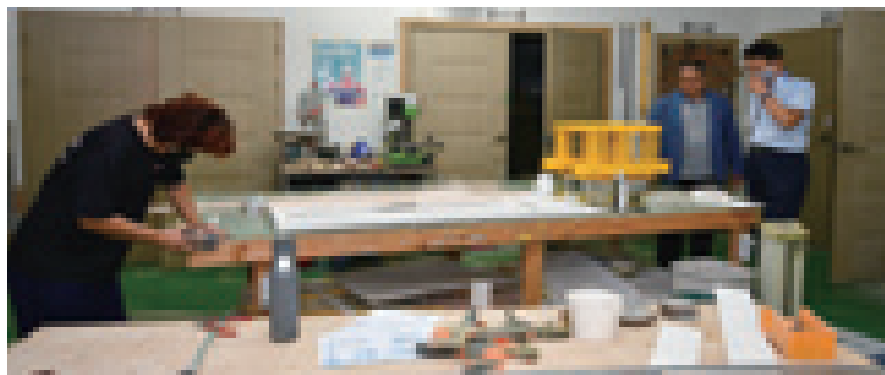
석사학위까지 공부하던 중에 문득, 제가 머리는 좋은데 꾸준히 한 가지에 매달려 공부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사

박형규(43회) 사장은 부산 명륜동에서 태어나 대신동에서 자란 완벽한 부산 토박이 이다. 난해한 항공우주 분야를 전공한 공학도답게 박 사장의 안경 너머로 부터 퍼져오는 탐험가의 강렬한 눈빛은 깊은 인상을 주었다. 축소된 대상을 통해 전체를 표현하는 모형제작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보다는 취미와 자기 만족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내면과의 싸움이다. 박 사장은 이 일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새롭고 재미있어 한다. <편집위원 박종기(28회)>



박형규 사장은 KOSMO가 조선업계의 Scale Model Ship 제조 분야에서 경쟁력 1위라며,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선박모형 주문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조선업계, 방위산업체, 각 대학 등 주요 고객...해외서 주문 지속
세계화 눈 돌려 필리핀에 지사...코로나로 해외사업 중단 상태



KOSMO의 작업실 내부 모습.

를 포기하고, 당시 새로운 분야였던 항공기에 선박을 결합시킨 「표면효과익선(WIG선)」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기계연구원 산하의 선박연구소(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취직(1997년)하게 되었습니다.

2년간은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소형 WIG선을 개발했고,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과 대형 WIG선 과제도 진행했으나 IMF의 여파로 대기업들이 미래과제 투자를 늦추는 바람에 항공보다는 당시 떠오르던 조선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연구를 진행하던 과정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발품이 도면으로 그려지고 나면 테스트를 위해서 「엔지니어링 Mock-up」이라는 축소 모형을 만들

어 실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국내에서 엔지니어링 Mock-up의 개념을 이해하고 제작해주는 전문회사가 없어서 간판집, 목공

소, 철공소, 프라모델 등을 전전하며 어렵게 Mock-up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공과 조선분야를 공부한 저야말로 연구원들의 개발 의도에 맞는 Mock-up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이 생겼고, 이것을 사업으로 연결시켜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에 30세가 되던 1999년, 대형조선소가 인접한 고향으로 과감히 돌아와서 KOSMO를 설립했고, Mock-up이 꼭 필요했던 국내 조선 3사를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KOSMO가 동종업계에서 가지는 위치나 경쟁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건 축 (30%), 자동차 (20%), 선박 (20%), 박물관 (20%), 군수산업 (10%) 등의 분야에서 국내 약 100여 개의 모형 제작사가 있습니다.

현재 조선업계의 Scale Model Ship 제조 분야는 KOSMO가 1위여서 해외에서도 선박모형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주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의 선박, 해양플랜트 관련 연구소들의 테스트 모형 및 장비 개발에도 상위그룹을 지키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군수산업 분야와 박물관 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한 단계 높은 정밀기술이 필요한 모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외 우리 회사는 관리부문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아 ISO9001 인증을 취득했고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으로도 지정되어 있으며, 해군에는 보안검사를 통과하여 납품적격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그렇듯 지난날 어렵고 좋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일과 가장 기쁜 순간이 있었다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경험이 없어서 첫 3년간은 자금 부족으로 매일같이 뜬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사 11면에 넘김>

■ 연구과제 수행실적

기간	과 제 명	주관부처	역할
2001.04-2003.03	조선기술체형 및 경주용 모형선박 제작 KIT 개발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	책임연구원
2003.01-2004.12	동력 요트개발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청	일반회원사
2005.04-2007.03	윈드서핑 장비 국산화 설계 제작기술 개발	산업자원부	총괄책임
2010.6-2012.5	접이식보트 및 멀티카약 개발	중소기업청	총괄책임
2011.12-2013.11	카이트 추진형 20피트급 레저보트 개발	중소기업청	총괄책임
2014.06~2016.08	20ft급 요트의 해상용 태양광 패널과 하드세일을 적용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개발	중소기업청	총괄책임
2016.06-2017.02	조선해양분야 복합재료 모형 생산공정 효율 향상을 위한 3D스캐닝 및 프린팅 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총괄책임

“풍부한 대인관계, ‘경험시간’ 단축...좋은 경영 밑거름”

〈기사 10면에서 받음〉

서른 살 청년이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결혼 때 부모님이 주신 아파트 전세금과 제 처가 삼성중공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남편 사업에 합류하기 위해 퇴직해 받은 퇴직금 모두를 사업에 올인하고도 모자라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직원 월급 주는 것을 3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소들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일량은 늘어났지만 그 때문에 두 번째 3년을 고생했습니다. 모형을 만드는 일은 특수직종이어서 기술자가 흔치 않고 채용도 어렵습니다. 일은 많아져서 좋은데 이제 직원들이 힘들어서 일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새로 뽑고 반복했더니 조금 번 돈을 다 쓰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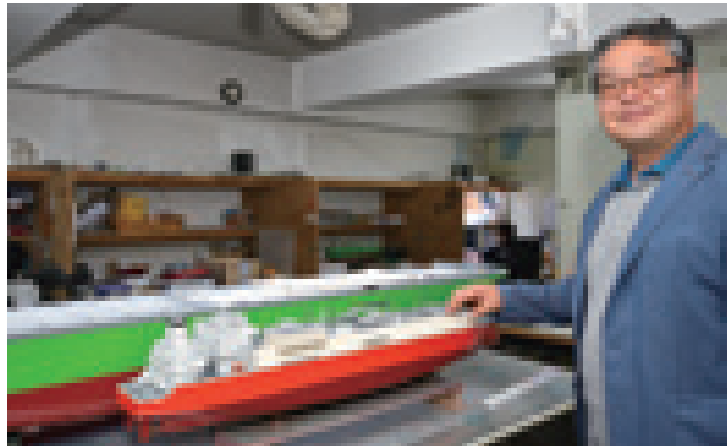
그래서 기술만 있다고 사업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35살에 부산대학교 MBA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데 죽자고 일해도 돈을 벌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지 해답을 찾기 위해 경영학에 노크한 것입니다. 경영학 석사 과정에서 경영상의 자금관리와 인력관리 등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었는데 그 시기가 참 행복했었다고 회고합니다.

신 살이 넘은 공장장, 은행원, 자수성가한 사장님들, 갓 대학 졸업한 경영학도, 대기업 임원들을 골고루 만나고 경험을 듣고 깨우치면서 제 사업에도 조금씩 자신감이 붙어 갔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지 약 10년 만에 집도 장만하고, 딸 아들 2남매를 둔 가장으로서, 경영자로서 만족감도 느꼈습니다.

2011년부터는 세계화로 눈을 돌려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견문을 넓히고 제 사업 항목을 하나하나 늘려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에 지사를 만들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남아 지역에 우리나라의 조선기술을 전수하고, 필요한 엔지니어링을 판매하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약 2년간 해외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형제작 사업이 수공업 비율이 높은 만큼 종업원들의 근무환경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종업원의 복지는 어떤 형태로 시행하고 계신지?

▲저와 제 처 둘 다 대기업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 창의력과 효율을 중시해서 직원들에게 탄력적 근무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형 업종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제작기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 작성된 매뉴얼대로 제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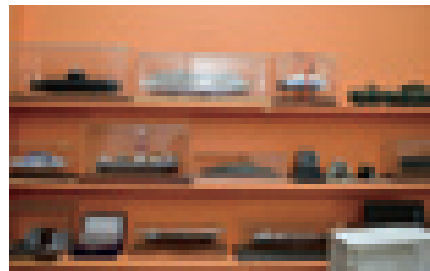
박형규 사장이 완성된 선박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완성된 선박모형 작품들.



가까이서 본 작품.



납품되었던 작품들의 모형 전시 모습.

만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엄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가진 여건의 한계로 Google과 같은 대기업처럼 편안한 휴게시설과 주변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항상 마음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금을 모아 자연친화적인 한적한 곳에 공장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화초를 길러가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박 사장님은 건강을 어떤 활동으로 유지하시는지? 혹은 어떤 취미가 있으신지?

▲모든 스포츠에 도전하는 스타일입니다. 대학 시절엔 당구, 직장에 들어가서는 테니스, 그리고 주말에는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골프, 스쿠버 다이빙, 패러글라이딩에도 관심을 가지고 훈련하는 중입니다.

저의 건강 비결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으며, 스트레스를 떨치기 위해 항상 스포츠를 즐기는 것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네요.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영위 중인 후배들에게 CEO로서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경영철학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자’입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공부를 해서 얻게 되는 것보다, 또 주위에서 조언을 해서 아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경험해 봐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후배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흘러야 하고, 그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려면 ‘풍부한 대인관계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잘 쪼개서 쓰는가’와의 싸움입니다.

제가 택한 방법은 최대한 많은 동호회와 모임에 가입하여 여러 분야의 분들과 인적교류 친분을 쌓는 것이고, 시간을 잘 쪼개어 그분들과 모임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해나간다면 남들이 1년이 걸려서 만나야 할 분들을 1달이면 만날 수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과 조언을 들음으로써 나의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지,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또 일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왜 잘 안 됐는지’라는 식으로 끊임없는 간접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인적교류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얻는데 요구되는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적교류와 시간과의 싸움, 거기서 좋은 경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닌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게을리 하지 말자’ 그게 결국은 내 인생의 경험시간을 단축시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박 사장님은 자랑스러운 경남중고 동문으로서 우리 총동창회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을까요? 아울러 선배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후배에게는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첫째로,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가 화합하기를 바랍니다.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테지만 지금처럼 간격이 생긴 20년이 됐습니다. 회비, 기금, 야구부 등의 지난날의 문제를 아직도 들먹이는 선배들이 있어서입니다. 이 상태로 그냥 가면 후배 기수로 갈수록 부산과 서울은 갈라서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의 오해를 덮고 미래로 나아갈 조치가 필요한데, 총동창회는 이미 박종찬(25회) 전 회장 시절부터 과거에 연연치 않고 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모교가 자리한 부산-경남지역 동문의 숫자가 월등히 많고, 입시 세대보다 평준화 세대의 동문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재경동창회도 미래의 후배들을 위해 조직 차원의 과거 종식 결단이 필요합니다. 총동창회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안아줄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로, 경남고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돈만 주면 된다’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Feedback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개선공식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단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총동창회가 종합해서 학교와 Plan을 두고 협의해서 교정과 교실이 산만하지 않게 내실 있고 유서 깊은 Story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야구부 중흥을 위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전 동문이 열광하고 단결할 수 있는 경고 스포츠는 이제 야구뿐이라 생각합니다. 성적을 올리고 지원을 늘리고 감독이나 코치를 선임하는 일들이 계획성 있게 추진돼야 합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성적과 선수들의 체력을 잘 관리하는 일 모두가 과학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 40대 이후 후배들은 하늘 같은 선배님들을 존경심을 담고 바라보고 있고, 아울러 50대 후배들로부터도 관심 어린 무서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43회 동기 회장을 10년 넘게 수행하며 동문, 동창이란 세계를 이해해온 저는, 우리 총동창회가 합리적이고 우애 가득한 따뜻한 동문회가 되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 43회도 최선을 다해 공헌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강서지구동창회는 동문탐방 기획 제18탄으로 이병훈(사진 가운데) 동문의 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했다.

강서지구동창회, 회계사 이병훈 동문 탐방 동문탐방 시리즈 18탄 실시

○...강서지구동창회 동문탐방 시리즈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중단되었다가 지난 9월 7일 제18탄으로 재개됐다. 대상자는 이병훈(32회) 강서지구 부회장이자. 이날 오후 4시반 김종규(31회) 회장, 김창범(32회) 감사, 이수관(38회) 사무국장, 구민수(50회) 조직차장이 탐방에 나섰다.

강서구 유통단지 내 세무회계사무소 대표로 활동 중인 이 동문은 강서지구 전임 집행부에서는 감사직을 맡다 현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이 동문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과 대한항공 LA지점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동아대·동서대 등에서 회계분야 강의를 맡기도 했다. 현재는 지역에서 중소기업의 세무회계자문과 컨설팅 및 관리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후덕한 면모의 이 동문은 현 김 회장

의 뒤를 이을 재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6월 강서지구동창회 창립 2주년 기념 밴드 댄스공연에서 김 회장은 이 부회장을 지목했다). 직업상으로는 숫자(돈) 계산이 주된 일로 여겨지나 그는 영혼이 맑은 시인이다. ‘공인회계사 시인’이란 의외의 이력에 놀라게 된다.

「부동산세테크 전략」 「중소기업의 세무실무」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라」 등 업종 연관 저서를 갖고 있는 이 동문은 시집 「광안대교」를 2003년 펴냈다. 학창시절부터 가졌던 문학에 대한 갈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 불씨를 지펴 첫 시집을 냈다. 이 동문은 “힘난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시는 나에게 위안이고 안식처”라고 적었다. 지난 추석 무렵에는 이 동문이 엮은 「추억의 명시」가 출간 되었다.

탐방팀은 이날 이 동문의 사상역 근처

지리산 ‘꿈의 능선’ 34km 무박종주 성공 김해지역 ‘자랑’ 김용진(36회) 동문, 도전정신 돋보여

김해지역동창회의 ‘자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김용진(36회) 동문이 지난 8월 15일 지리산 34km 무박종주에 도전해 성공했다. ‘꿈의 능선’으로 불리는 성삼재휴게소~천왕봉~중산리 버스정류장 코스이다.

마라토너인 김 동문은 코로나19로 모든 마라톤대회가 취소되어 정신과 육체가 점점 나약해져 가던 중 새로운 목표로서 지리산 무박종주에 도전하게 된 것이다.

김 동문은 지난 6월 첫 주부터 훈련하다 3주 만에 무릎 통증과 허리디스크로 한달여 쉬는 악재도 있었다. 김 동문은 “훈련량이 부족하고 몸상태는 온전치 않지만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에 도전하지 못한다면 평생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출사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지리산 무박종주에 도전한 김용진 동문이 천왕봉에 오른 모습.

김 동문은 “연습부족으로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보다 동문 선배님들의 응원과 격려 그리고 관심이 큰 힘이 되었다”고 토로했다.

의 단골 초밥집에서 ‘우정의 잔’을 껴었다.

강서지구 집행부 모임 가져 ‘동문의 집’ 스티커 배부 중

○...지난 9월 28일 코로나방역지침이 약간 느슨해진 틈(?)을 타 강서지구동창회 집행부 모임이 열렸다. “숨통이 좀 트인다”는 참가자들은 모두가 연말 전에 전체모임이 성사되길 기원했다.

이날 이병훈(32회) 부회장은 자신의

갓 출간 시집 「추억의 명시」를 참가자들에게 1권씩 전했다. 김종규(31회) 회장이 시집 속 박인환의 ‘목마와 숙녀’를 낭독하는 등 이날 분위기는 꽤 수준이 높았다는 후문이다.

한편 강서지구동창회는 지난 여름에 제작한 ‘동문의 집’ 스티커(사진)를 배부 중에 있다. 가로 30cm×세로 20cm 크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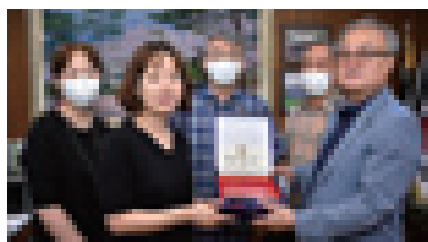
“언제나 경남고를 응원하겠다”

경남고에서 24년 4개월 근무 양민이 주무관 전근

총동창회, 감사패·기념품 전달
“경남고를 떠나더라도 늘 응원하겠다.”

경남고에서 24년 4개월 동안 행정직(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한 양민이 주무관의 말이다. 양 주무관은 1997년 4월 10일부터 경남고에 근무하기 시작해서 지난 8월 31일까지 헌신적으로 복무했다. 김성찬 제15대 교장 때부터 현재의 백영선 제22대 교장까지 8명의 교장을 보필했다. 26세부터였으니 젊음을 경남고와 함께 한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무에서는 가히 ‘달인’인 셈이다.

“그동안 경남고에는 좋은 분들이 많아 근무에 어려운 점은 없었다. 경남고 덕을 많이 보았다. 많이 섭섭하다”는 양 주무관. 그는 학교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켜보았다. “학교에는 행사가 많았다. 합창대회 등



을 옆에서 지켜보며 늘 응원하는 게 즐거움이었다”고 말한다.

양 주무관은 경남고 근무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김영삼(3회) 전 대통령의 모교 방문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1999년 가을 퇴임하신 대통령님이 학교를 방문해서 교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신비로운 느낌마저 들었다. 돌아가셨을 때 마음이 아팠다”고 추억을 털어놓았다.

양 주무관은 9월 1일자로 안락중학교로 전근했다. 총동창회는 양 주무관에게 감사패와 기념선물을 지난 8월 23일 증정했다(사진).



용마테니스회 재창립 준비위원회 모임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용마테니스회’ 재창립 움직임 준비위원회 발족...10월 30일 기념 경기

‘용마테니스회’ 재창립이 추진되고 있다. 테니스 애호가 동문들이 지난 10월 5일 오후 사하구 하단 만포장횃집에서 용마테니스회 재창립 준비위원회 발족을 겸한 1차 모임을 가졌다. 총동창회 산하 직능단체의 다변화와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회원 확보 방안, 지정코트와 운동 일자 선정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서 재창립 준비위원회 발족

기념 운동을 오는 10월 30일 신평테니스코트에서 갖기로 했다.

1차 30~40명 목표로 회원 확보가 실현되면 곧바로 재창립 총회를 가질 계획이다. 조만간 펼쳐질 ‘코트 위의 용마신사’들의 녹색공 향연이 기대된다.

◇참석자=김한원(20회) 김상현(26회) 박외병 박창석 손수범(이상 35회) 조성각(37회) 박동엽(58회).

*연락처 : 박창석 010-4325-4964

“건강의 중요성을 정신과 몸의 합체로 표현하고 싶었다”

칠순의 치과의사 허택(25회) 동문, 네 번째 소설집 출간

50대 들면서 ‘문학에의 꿈’ 실현 노력
소설작업, 노년생활 건강하고 풍요해져

치과의사 허택(25회) 동문(이하 작가)이 최근 자신의 네 번째 소설집 「언제나 편안하게」를 도서출판 강을 통해 펴냈다. 2008년 늦깎이로 등단한 후 소설 창작 작업 13년째의 성과물이다. 국제시장에서 치과병원을 운영 중인 허 작가는 “사람의 입속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엿볼 수가 있다”고 말한다. 허 작가는 그가 들여다본 무수한 사람들의, 혹은 그 중 특정 인물의 축축하고 어두운 입속의 공간에서 삶의 진실을 보았고, 세상을 읽었고, 나아가 삶의 해법을 나름대로 찾기도 했다. 40년의 진료행위는 그 예전 수행이었고, 그 수행이 쌓여 책으로 엮어진 것이다.

허 작가를 ‘몸의 소리’를 통해 세상을 읽는 소설가라고 한다. 이미 「몸의 소리들」이란 소설집도 내놓았다. 소설집 「언제나 편안하게」의 발문(跋文)을 쓴 문학평론가 전성욱 동아대 교수는 유명한 삶을 좇는 자의 욕망, 개인의 입신출세주의, 개발근대화가 낳은 문명의 폐악 등이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자해의 과정이라 진단하고, 허 작가가 무명함의 복된 가치로써 이들을 치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설집 「언제나 편안하게」에는 단편 8편이 수록돼 있다.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인물 설정에 따라 치유해 가거나,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단편 〈언제나 편안하게〉는 이혼한 전 남편을 12년 만에 만나 ‘예전 사랑했던 마음이 기억되면서’ 소설 제목처럼 언제나 편안하게 소위 ‘쿨’하게 관계를 가지는 이야기이다.

단편 〈피가 흐름 후 맑음〉은 우월의식이 가득한 대학교 여자 학장의 심근경색과 치유 과정을 통해 가족간의 사랑이 해법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단편 〈습진이 만든 병〉과 〈허무, 끝〉에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며, 각기 얹혀 짓하는 인물, 매정한 인물이 나온다. 이들의 정신적 황폐화가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단편 〈1995년의 결〉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살아온 친구의 대립과 갈등을 묘사했다.

단편 〈어처구니없게도, 그러나〉는 일에 쫓겨 건강을 잃게 된 여자 공인회계사가 외할머니의 삶의 지혜로 건강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단편 〈끝나지 않은 싸움〉은 보육원에서 자란 사내가 사회적 냉대로 갖는 독기가 사랑이라는 온기로 치유될 수 있음을 전하고 있다.

단편 〈찰나의 연극〉은 삼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인물이 사고 직전 각각 어떤 처지에서 심리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몸과 마음의 균형과 조화가 무너진 사례이다.

전 평론가는 이번 소설집에서 ‘질병이 만연한 시대를 치유하는 현로(賢老)의 존재가 인상적’이라고 했다.



40년 치과의사로 활동해온 허택 작가는 사람의 입속을 통해 엿본 다양한 삶들을 통해 세상을 읽고 소설을 창작한다고 말했다.

바로 허 작가가 그 현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 시대의 다양한 병인(病因)을 문학의 향기와 사랑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작가의 정신세계를 말한다.

허 작가를 지난 9월 16일 오후 허 작가의 치과병원에서 만났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춘추 70에 네 번째 소설집을 냈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이번 출간에 대한 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네 번째 소설집은 저 혼자만의 작업이 아닙니다. 주위 분들 즉 가족의 응원, 문우님들의 합평과 담론, 출판관계자 분들의 협력, 소설 창작을 위한 여러분들의 협조, 살아온 삶에 대한 감회 등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작가의 말’에서 ‘여러 인생살이 중 문학을 접한 생은 행운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문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피난민 2세로 청소년 시절 보수동 책방골목 근처에 거주하면서 책과 접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자연스레 문학에의 꿈이 생겼고 50대로 접어들면서 꿈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게 됐습니다.

-글쓰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어떤 수업이나 수련 과정이 있었습니까? 요즘 문인들과의 교류는 활발하게 하십니까?

▲50대 초기에는 부산에서 문학수업모임에 가입해 3여 년 소설창작 수업을 했습니다. 부산소설가협회 요산문학회 부산작가회의 등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윤후명 선생님 문하생으로 문학비단길 모임에서 5여 년 수업했습니다. 윤 선생님 문하생들과는 계속 교류하고 있습니다. 윤 선생님은 ‘끝까지 써야 한다. 손을 놓지 마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소설의 진정한 느낌, 맛을 알게 되고 작업을 통해 새로운 경험하게 됩니다.

-소설 집필, 즉 글쓰기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과의사라는 단편적이고 획일화될 수 있는 인생여로에서 소설작업을 통해 뜻밖의 자아성찰과 다양한 생의 모습을 경험하고 관조할 수 있어서 노년의 생활이 건강하고 풍족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주말에 주로 글쓰기를 하는데, 지금도 친필로 작업합니다.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천착해온 테마가 ‘몸의 소리’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라는 직업적 영향도 있겠지만, 왜 여기에 마음이 끌렸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치과의사라는 직업적 관점에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 소설 속에서 건강의 중요성을 정신과 몸의 합체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건강에 대해 잘 모릅니다. 밸런스가 깨지면 생활이 흐트러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향후 장편소설 집필에 들어갈 것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옥고(玉稿) 완성을 언제쯤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정신과 몸의 건강한 합체는 인간본체의 핵심이자, 견실하고 행복한 삶의 기초입니다. 정신과 몸이 건강하게 혼연일체 되면서 생활이 더욱 행복해지는 과정을 집필하고 싶습니다. 계획은 내년 말쯤으로 잡고 있으나 몰두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첫 페이지는 적어놓았습니다.

-동문회 조직도 사회 공동체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이자 작가로서 동문 후배들에게 들려 줄 좋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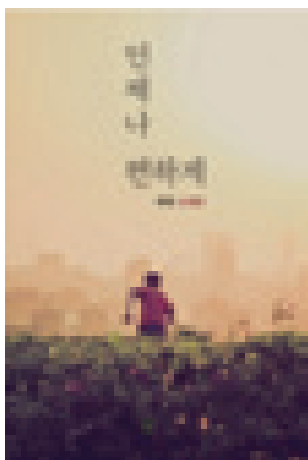
▲보람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로 ‘꿈은 이루어진다’는 현실적 노력의지가 꾸준히 필요하고, 차분하게 매진해야 된다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대를 이은 치과의사로 한 자리에서 60년 가까이 활동 중이신데, 연유가 있습니까?

▲부친이 1962년 이곳에서 터를 잡았는데, 단골환자가 손자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 자식들은 치과의사가 아닙니다만, 사위가 치과의사라 두고 볼 일입니다. (허 작가의 아들은 영화배우 허준석이다.)

동창회보 기고는
yongma2007@hanmail.net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창회보 광고
문의 환영
Tel. (051) 253-7788



소설집 「언제나 편안하게」 표지.

서구와 중구 역사 오롯이 지켜본 근대식 상수도 효시

보수천

부산의 하천 대부분은 부산의 발전과 함께 심하게 오염되어 왔다. 특히 도심 속의 하천들은 햇빛을 전혀 쬐 수 없게끔 콘크리트 박스로 복개까지 되어버렸다. 그러나 오늘날 시민들은 하천을 막연하게 자연공간이라는 생각과 함께 보다 높은 차원의 물 문화와 수변 문화공간으로 느끼고 싶어 한다. 그리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따라서 부산은 하천에 대한 가치를 찾아내 더욱 발전시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바로 지금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시점이다. 현재 상황까지 오면서 묻혀지고 잊혀져버린 부산의 대표 하천 그들의 애환을 달래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우리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관이 역사적 개관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다. 총동창회관이 위치한 부평동(富平洞)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보수동(寶水洞)과 부민동(富民洞)이 있다. 이들 지역에 도심하천이자 대부분이 복개천으로 변해버린 오늘날의 보수천(寶水川)이 중구와 서구에 연결되어서 흐르고 있다. 보수천은 길이 3.8km, 유역면적 8.2km²이다. 옛날에는 물이 맑았다. 지금은 근처에만 가도 악취가 코를 찌를 듯해서 오염상태를 그냥 두고 보기가 힘들 정도지만 복개가 되어있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은 하수구로 인식하고 있다.

보수천을 법수천(法水川, 法首川)이라고도 불렀지만 지금은 아무런 정화 능력 없이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시장인 자갈치시장이 있는 부산 남항의 바다로 흘러드는 유일한 하천이다.

지류인 구덕천과 엄광산의 줄기에서 각각 발원한 보수천은 적은 양의 계곡수가 흐르고 있지만 도중에 하수와 섞이면서 도심의 복개하천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햇빛이 차단되어서 통성혐기성의 복개천 문제와 함께 빗물을 토양 속으로 침투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불투수층 면적들이 늘어난 점, 수질오염을 증가시키는 비점오염물질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과 합류식 하수관거로 인해서 생기는 월류가 심한 오염과 악취를 발생시키게 하는 점들이다.

부산은 국가하천 5개소와 지방하천 45개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 연결되어 있는 소하천과 구거들도 상당히 많다. 하천법에 준거하는 지방하천인 보수천을 관계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자연하천 복원계획 추진에 대한

부산의 하천, 어제와 오늘 ①

--'숨쉬는 동천' 대표 이용희(34회) 동문 기획탐방--



구덕천·엄광산 줄기서 발원...유역에 숨한 '오래된 미래' 상류~하류 맑은 물 계속 흐르게 해 하수구 인식 탈피를



대신공원 옆 구덕제1저수지(수원지) 전경.

사업 의사를 갖고 있는 부산의 지방하천들 가운데서도 몇 안 되는 하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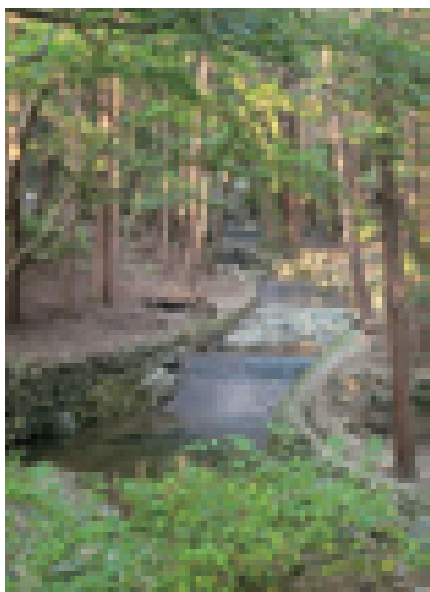
그러나 보수대로에서의 교통문제와 복원구간의 선택이 고민이다 보니 보수천의 복원 결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수질개선 여부에 대한 수량과 유속 문제의 해결에서도 자신감 결여가 있을 것이다. 보수천이 보여주는 하천복원 공사가 아니라면 상류로부터의 맑은 물이 계속해서 하류까지 흐를 수 있게끔 하는 작은 방안이라도 마련해서 실행하면 좋겠다. 이른 시간 내에 오폐수분리관 설치공사도 완료되길 바라며 구간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과 작은 하수처리장 시설들도 만들어졌으면 한다.

보수대로를 따라서 보수천 유역을 넓고 크게 보고 길을 나서면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것,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서 앞으로 오래된 미래가 되어 계속 이어져 함께 만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구덕꽃마을, 구덕제2수원지, 구덕제1수원지, 대신공원, 구덕도서관, 경남고등학교, 동아대학병원, 구덕운동장과 구덕야구장, 부산터널, 1912년에 개



보수천의 끝 지점은 복개돼 도로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수천의 지류인 구덕천의 모습.

교한 부산제2공립심상소학교(화랑초등학교), 1921년에 개교한 부민공립보통학교(부민초등학교)와 부민관, 교량인 부민교와 부성교, 흑교사거리에서 검정다리 추억비, 노면전차, 동아대 부민캠퍼스, 임시중앙청으로 불렸던 임시수도 정부청사,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 피란민 수용소, 한국전쟁 당시에 1년간 운영된 부산전시연합대학, 경남도청,

부산지방 검찰청, 각종 무도대회와 웅변대회가 개최되었고 필자도 어린 시절 유도대회에 참가했었던 무덕관, 부산대학과 부산대학병원, 보수동 책방골목, 부산공립고등여학교(부산여고), 부산 최초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남선전기, 경남중학교, 1919년 개교한 부산제6공립심상소학교(충무초등학교+토성초등학교), 1910년에 개설한 조선 최대의 공설시장이었던 부평시장, 피란지 부산에서의 동아일보 임시사옥, 대정공원과 이후의 충무동 광장, 감천문화마을과 관계되는 태극도 본부, BIFF광장, 보수천 끝자락인 충무동 앞의 해안교, 감천으로 옮기기 전의 부산화력발전소와 석탄을 발전소에 공급했던 철도, 일제강점기에 만든 근대 독신아파트인 청풍장, 초량왜관, 보수천 하구의 해변 부민호와 포구인 부민포(富民浦) 등이다.

산과 강 그리고 바다가 잘 어우러져 있는 부산은 조선 성종시대를 전후로 부산(富山)이 부산(釜山)으로 바뀌었고, 사하면과 부산면의 경계를 보수천으로 하였다. 1886년(고종23년) 보수천에 우리나라 최초의 수도설비라 할 수 있는 죽관과 목관 수도관이 사용되었으며, 1894년에는 자연여과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근대식 상수도의 효시가 된 곳이다. 그리고 1900년에 보수천 상류 구덕수원지를 축조한 것이 현대식 상수도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보수천에 물이 흐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도 흐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총동창회를 포함해서 보수천 유역의 동네사람들 모두가 자연에 약간의 책임만 저도 자연은 무한히 돌려주기에 세계적으로 사고해서 지역적으로 행동에 나서서면 좋겠다.



자갈치시장 앞 바다와 만나는 보수천.

‘불굴의 무쇠팔’ 최동원 10주기…“호쾌한 강속구 못잊어”



최동원 감독 10주기 추모식에서 최동원야구교실 어린이들이 롯데 응원 붉은색 수건 최동원 동상에 걸기를 하고 있다. 오른쪽 아래 작은 사진은 최 감독 어머니 김정자 여사가 출판하는 회고록 「내 가슴의 심장 최동원」 표지. <사진=윤원옥(39회) 영상편집위원>

‘투혼과 도전, 헌신과 희생의 ‘최동원 정신’ 부각 다큐 영화 곧 나와…기념사업회 참여도 고려해야

대한민국 야구사의 최고의 전설이 된 ‘무쇠팔’ 최동원(31회·전 한화이글스 2군 감독) 동문의 10주기 추모행사가 지난 9월 14일 오후 사직야구장 최동원 동상 앞에서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가을비에도 불구하고 불세출의 영웅 최동원을 그리워하는 야구팬 100여명이 운집했다.

(사)최동원기념사업회가 주도한 이날 추모식에는 최 동문의 어머니 김정자 여사를 비롯, 김대욱(29회) 경남중고 총동창회장을 대리한 현웅열(29회) 사무총장, 부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정신(47회) 회장, 기념사업회 및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 그리고 고인을 기억하는 야구팬과 최동원야구교실 어린이 회원 25명과 학부모 등이 참석, 고인을 기렸다. 이날 총동창회에서 류

명석 오민일(이상 31회) 오희진(38회) 집행위부회장과 윤원옥(39회) 사무국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추모식은 묵념과 헌화로 시작했다. 이어 그의 절친한 친구 이만수 전 SK 와이번스 감독이 보내온 편지 낭독이 있었다. 이 감독은 편지에서 “하늘의 별이 된 나의 친구.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묵직한 빠른 볼과 낙차 큰 드롭성 커브는 환상적이었다. 특유의 역동적인 투구폼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 어느 누구보다도 야구를 많이 사랑한 친구”라고 회상했다.

현 사무총장은 추도사에서 “이제사 찾아와 송구하다. 최동원기념사업회의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최동원과 는 고교시절 1년을 함께 보냈다. 우리에게 기쁨이었고, 이후에는 부산시

민의 기쁨이었다. 앞으로도 그를 영원히 기억하자”고 말했다.

최동원야구교실 어린이들의 롯데 응원 붉은색 수건 최동원 동상에 걸기, 어린이 추모글 낭독, 젊은 시절 최동원팬 이유선 씨(70)의 추모글 낭독 등이 진행됐다.

최동원의 어머니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동원아! 동원아! 지금 이 현장을 보고 있지. 이 비는 너의 기쁨의 눈물이다. 추모식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울부짖었다.

한편 지난 9월 12일에는 롯데 자이언

츠가 키움 히어로즈와의 사직구장 홈경기에 앞서 추모행사를 가졌다.

최동원은 1984년 롯데 자이언츠 선수로 한국시리즈에서 5차례 등판해 4승을 달성했다. 불굴의 투혼으로 이룬 전대미문의 기록이다. 최동원은 롯데 자이언츠 현역시절 통산 8시즌 동안 248경기에서 103승 74패 26세이브, 평균자책점 2.46을 기록했다. 81차례 완투했다. 그는 선수협의회 결성을 주도하면서 프로야구 선수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면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불굴의 투혼과 도전정신 그리고 팀과 동료들을 위한 헌신과 희생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기록들이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최동원 정신’이라고 표현했다.

‘불세출의 영웅’ ‘불굴의 무쇠팔’ ‘야구사의 전설’ 등 최동원을 지칭하는 빛나는 닉네임이다. 하지만 경남중고 졸업생들은 그를 한결같이 동문수학한 동문으로, 용마로, 그리고 영원한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그를 기념하고 추모하는 일을 기념사업회에 맡기고 방관해온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 과정을 다시 들춰내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이제라도 최동원을 기억하는 일에 한 발 다가서야 한다.

최동원 동문 10주기를 맞아 그의 레전드 경기와 발자취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1984, 최동원’이 오는 11월 개봉될 예정이다. 어머니 김 여사의 회고록 「내 가슴의 심장 최동원」이 출판된다.



최동원 감독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동문들과 최 감독 어머니(가운데) 김정자 여사.

‘마산고 야구부 감독’ 고윤성(55회) 동문, 전국 제패 협회장기 우승…경남중고 코치로 지도자 역량 쌓아



지난 8월 제7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를 거머쥔 마산고 야구부 감독 고윤성(55회) 동문은 “선수 특성, 성향 등에 따라 맞춤형 트레이닝을 하니 기량이 크게 신장되었다”고 말했다.

“고교야구는 변수가 많다. 선수들이 부담감 갖지 않고 편안한 마음에서 경기를 치르도록 했던 게 주효했다. 한 게임, 한 게임 강팀을 상대하면서 위축되지 말고 ‘우리 플레이’를 하자고 독려하니 미스플레이가 적었다.”

지난 8월 15일 강원도 횡성에서 열린 제7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마산고 야구부 고윤성(55회) 감독의 말이다.

고 동문은 1942년 창단한 마산고의 사상 첫 전국대회 제패, 나아가 1920년

대부터 시작된 마산지역의 100년 야구 역사상 첫 번째 전국대회 우승 기록을 세운 주역으로 부각됐다.

마산고 부임 4년차인 고 동문은 “선수 개인훈련을 많이 시켰다. 선수 특성, 성향 등에 따라 맞춤형 트레이닝을 하니 기량이 크게 신장되었다”고 말했다. “경남고 전광렬(44회) 감독에게 배운 대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야구선수 이전에 학생 신분임을 늘 주지시키고, 학생다운 예의범절과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2년생인 고 동문은 롯데 자이언츠의 이대호 선수와는 동기생으로 친구

사이이다. 경남고 시절 포수와 외야수를 맡았다. 쟁쟁한 동기들에게 밀려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고 동문은 2학년 때까지 투수 이대호의 공을 받으며 함께 호흡했고, 3학년부터 외야수를 겸했다. 2001년도 KBO 신인 드래프트 2차 지명에서 삼성 라이온즈의 7라운드 부름을 받았지만, 동아대 진학을 택했다. 대학 졸업 후에 신고선수로 롯데 자이언츠에 몸담았다.

하지만 고 동문은 프로무대에선 빛을 보지 못했다. 롯데를 나와 아마추어 야구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이대호가 타격 3관왕을 차지하던 2006년 모교 경남중 코치를 맡았다. 이어 마산동중과 경남고 코치를 거쳐 2018년부터 마산고 지휘봉을 잡았다.

제자들에게 ‘사람이 손이 두 개인 이유’ 입버릇처럼 이야기

경남고 조영택 교사

경남고 제73회 졸업생 김호빈(서울대 기계공학과 재학) 동문이 지난 봄 모교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하면서 기부 사유를 모교의 여러 선생님들의 열성적 지도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영택 교사의 지도와 사랑은 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동문의 선행은 참교육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조 교사의 학생 교육 및 지도의 실제, 교육관 등을 집중조명해 보았다.

2017년 3월 경남고에 부임한 조 교사는 현재 인문사회부장을 맡으며 역사와 사회문제탐구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조 교사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졸업하였으며 1987년부터 교직에 몸담아왔다.

-김호빈 동문이 장학금 기탁 사유에 조영택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하며, 선생님 가르침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셨습니다?

▲평소 학생들에게 ‘사람에게 손이 두 개인 이유는 오른손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왼손은 남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의미’라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해 준 것을 졸업 후 후배들을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라고 강요하다시피 가르칩니다. 장학금을 주고, 문제집과 책을 사주며, 언제든 도움을 청하는 학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입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교사이지 않습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 특히 고3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헌신과 애정이 없으면 하기 힘들다. 저는 고3 담임을 하든, 하지 않든 2017년 이후 대학 입시와 관련된 일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과 서울지역을 비롯한 상위권 대학 입시 지도를 도맡아서 했습니다. 2017년 경남고에 온 첫해에 서울대를 두 명 보냈습니다. 5년 만에 서울대를 보낸 것이라고 하더군요. 3학년 수업만 하고 담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두 학생의 담임이 고3을 처음 맡아서 입시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두 분 담임이 3월부터 제게 도움을 청하기에 생기부 적는 것부터 자소서와 면접까지 지도를 도맡았습니다. 2018년에는 고3 담임을 하며 부산 의대와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 입시지도했습니다. 2018년 연세대 기계공학과에 진학한 김호빈 학생은 2019년에 반수를 해서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2019년 수능 이후, 마침 서울에 갔다가, 서울대 1차 합격했다는 호빈 군의 연락을 받고 밤늦게까지 면접지도했습니다. 고3이었을 때도,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제게 전화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도와주는 데 대한 고마움을 늘 표현하던 학생입니다. 올해 3월 후배들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주고 싶다는 전화를 받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가르친 보람이 드디어 나타나구나! 서울대를 몇 명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 받은 것을 후배들을 위해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대로 멋지게 성장했다는 사실이 더욱 보람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바른 인품과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한 모습을 확

“오른손은 자신을 위해, 왼손은 남을 위해 사용하라” 늘 훈시
제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에 “멋지게 성장...가르친 보람”
“지금, 이 자리에서, 나부터” 지행합일 실천, 지식인 의무라 생각



제자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면서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경남고 조영택 교사. 착하고 선한 표정과 눈빛에서 제자 사랑의 진실됨을 읽을 수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인하는 것이야말로 교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아닐까요?

학생들 위해 지출 많이 하는 편

-학생이 목표 성적에 도달했을 때 문제집을 사주는 등 격려를 많이 하셨는데 이 같은 일이 자주 있는지요?

▲예전 고3 학생들은 성적 올랐을 때 문제집(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기출문제집 등)을 사주면 되게 좋아했습니다. 1등급 받은 학생뿐 아니라, 직전 모의고사 성적보다 1등급 이상 향상된 모든 학생들에게 수능 문제집을 사줬습니다. 요즘도 문제집뿐만 아니라 좋은 책들을 사서 읽게 합니다. 그리고 담임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생일날, 생일편지와 함께 조그만 케이크를 선물로 줍니다. 아침에 초코파이 같은 것도 주고, 여름엔 아이스크림도 자주 사줍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 이상... 옛날엔 학생들 생일날, 좋은 책을 한 권 선물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먹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담임하거나, 수업하면서 학생들에게 지출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자들 원하는 바에 시간 할애 당연

-요즘도 졸업생에 대해 사후 지도 사례가 있습니까?

▲언제나, 항상 졸업생들이 찾아옵니다. 졸업 후 찾아오는 학생들에게는 항상 밥 한 끼를 사 먹여서 보냅니다. 대학 입학 후 시험기간 끝났다고 오고, 군대 간다고 오고, 제대했다고 오고, 취업했다고 오고... 10년이 지나도 찾아오는 친구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졸업생도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자기소개서나 면접

지도를 부탁하면 흔쾌히 시간을 내어 지도합니다. 올해도 서울지역 주요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졸업생 자기소개서 작성을 지도하고 있고, 2020년 겨울방학 중에는 3수를 하던 졸업생 면접 지도를 해서 연세대 체육교육과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의대 지원하는 졸업생 2명에게 자기소개서 쓰기와 면접 지도를 했구요... 제자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데, 스승으로서 시간을 할애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제자들이 있으면 도와야겠지요?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 드러내기 노력

-자기소개서 쓰기와 면접지도 잘 해주셨는데 핵심포인트가 뭔지, 노하우 같은 게 있는지요?

▲자기소개서 쓰기와 면접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진로에 초점을 맞추어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을 어떻게 잘 드러낼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고등학교 3년간의 활동을 어떻게 입시관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입시관계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서 뽑아주고 싶게 만들 것인가? 입시관계자들을 어떻게 감동시킬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짧게는 고등학교 3년간의 공부와 학교 활동, 길게는 12년간의 공부가 마무리되어 보여지는 것이므로 학생들의 역량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과 내용으로, 학생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정말 힘들어서 올해만 하고 이제 다시는 안 해야지...하며 다짐을 하지만, 다음 해가 되면 또 학생들을 위해 시간과 건강과 가정을 뺄까치고 학생지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

“경남고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 이태석 신부님의 모교라서”

좀 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원동력

☞ -교육자로서 사명감 내지 신념, 교육적 지향점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부터’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학생들에게 자주 합니다. ‘지행합일’이야말로 지식인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세상은 바뀌어 나가거든요. 나중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기부를 하겠다거나, 덜 바쁠 때 남을 돕겠다거나, 적절한 때가 오면 생각하고 있던 좋은 일을 실천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시간은 절대로 오지 않고, 남을 도울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지 않으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부터 먼저 해보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요?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세상은 절대로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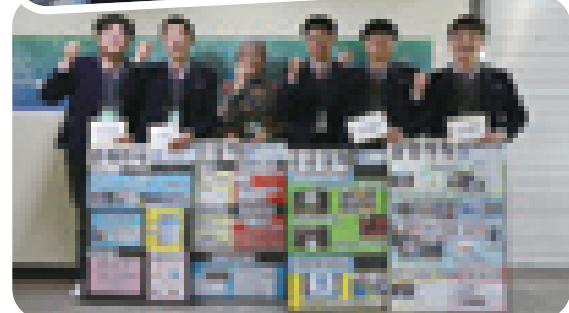
이태석 신부님 참사랑 본받아 실천

-현재 학교에서 수업 외 맡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특히 이태석 신부참사랑실천동아리를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데 소개해 주십시오.

▲‘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 경남고 ‘이태석 신부참사랑실천동아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이태석 신부참사랑실천동아리’는 2017년 경남고에 부임한 후 이태석 신부님의 참사랑을 본받아 지역 사회와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생활화하여, 공헌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발전하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이태석 신부참사랑실천동아리’의 활동 방향은 자원순환프로젝트 활동 및 환경보호 활동, 독거노인을 위한 나눔 실천하기,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기부 활동의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사태로 힘든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 마스크를 모아 서구청과 이태석 신부참사랑실천사업회에 기증한 일이 부산일보 등 언론에 보도되는 등 참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대외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태석 신부참사랑실천동아리의 이름을 내세우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남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고, 이태석 신부님의 참사랑을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는 제가 정년퇴직 하고 나면 이 동아리 활동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만, 누군가 또 다른 선생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강렬히 가져 봅니다. (올해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이 “퇴직한 후에도 특강하러 오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敵)은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_^)



경남고 조영택 교사가 제자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는 모습.

-교직자로서 감동이나 보람을 느낀 적도 있을 줄 압니다만.

▲학생들의 멋진 모습을 보는 모든 순간이 감동이고 보람입니다.

-지난해 부군께서 경남고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부하셨는데,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남편 회사가 좀 잘 될 때 제가 남편에게 돈 달라는 말을 일 년에 딱 한 번 했습니다. 생일 선물로 제자들에게 줄 장학금 좀 달라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회사가 좀 어려워진 관계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경남고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장학금 지급과 학교도서관에 도서 기증하기 등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경남고에서는 2017년 첫해에 장학금 150만원, 2019년 300만원을 남편 이름으로 기부했습니다. 현직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장학금을 기증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만원이라도 기부하는 소액기부자야말로 이 세상을 진정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단어린이장학재단과 이태석 신부참사랑실천사업회 등에도 기부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매일 돈 부족하다고 징징대면서 기부는 왜 하노?”라고 물어서 “기부란, 쓰고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돈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조

금 나누어 주고 남는 것을 쓰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이후부터는 남편도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삶도 아름답습니다.

-경남고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나 관심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경남고 동문들은 대통령을 두 분이나 배출한 학교라는 데 자부심이 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경남고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태석 신부님의 모교라는 점입니다. 대통령은 어떤 학교 출신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러 칭송받으며, 그분의 삶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 분, 그분이 바로 이태석 신부님이십니다. 교사로서의 희망이라면 앞으로 또 경남고 출신 중에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이 나타나게 되기를...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싶습니다. 명예동문(?)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은 헌신적 선생님 따라오게 돼

-경남중고 동문회나 동문들에 대해서 한말씀 하신다면?

▲먼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액기부활동’에 동참해 주시는, 마음이 따뜻한 동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총동창회 김종명 편집주간님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지만, 굳이 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동창회보에 실린 인터뷰 기사를 보신 경남고 동문분들께서 후배들을 위한 기부뿐만 아니라 ‘소액기부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모교와 후배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좀 더 가져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모교의 은사님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경남고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 경남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입니다. 학생들은 헌신적인 선생님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교 80주년에 이어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궁극적인 변화는 결국 학생과 교사와 동문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학생들이 학업 역량을 크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향후 인생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만 62세가 되는 정년퇴직이 1년 반(2023년 8월 말) 남았습니다. 퇴직 후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살려구요. 제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실현하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기념관도 만들어 보고, 봉사활동도 하면서요. 운동도 좀 하고 그림도 그리면서, 제가 사랑하는 곳을 실컷 여행하면서 남은 시간들을 보내고자 합니다. 물론 남편 사업이 잘 되면, 장학재단을 만드는 게 제 원대한 꿈 중의 하나이기도 하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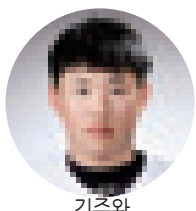
*바로 잡습니다

동창회보 제436호 16면 ‘73회의 보은 장학금’ 기사 중 ‘조영택’은 ‘조영택’의 오타로 바로 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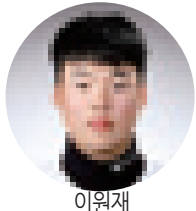
경남고 야구부 3명, 프로 무대 진출

김주완 이원재 노운현 등 모두 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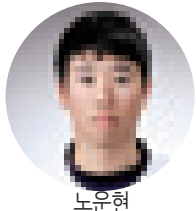
2022 KBO 리그 2차 신인드래프트에서 경남고 야구부 선수 3명이 지명을 받았다. 김주완(투수3학년 4반) 이원재(투수3학년 6반) 노운현(투수3학년 5반) 선수이다. 좌완 김주완은 LG(1라운드), 우완 이원재는 두산(2라운드), 좌완 노운현은 키움(4라운드)으로부터 각각 지명을 받아 내년부터 프로야구 무대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나머지 선수들은 대학 진학 후 기량을 인정받아 프로야구계로 진출할 길은 열려 있다.



김주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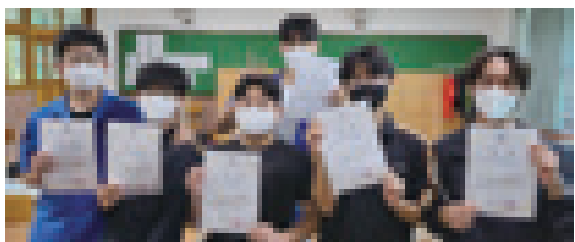


이원재



노운현

경남고 그린리더(green leader) 동아리 청소년 자원순환 리더십 공모전 우수상



수상 후 기념 촬영 모습.

지난 9월 6일 경남고 그린리더(green leader) 동아리가 환경부 주최,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주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후원의 제11회 청소년 자원순환 리더십 프로젝트 [순환도전] 공모전에 참가하여 우수상(상금 30만 원)을 수상하였다. 그린리더 동아리는 '두 번째 '쓰임'을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이라는 주제로 릴레이 캠페인 활동과 함께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 컵 수거 및 세척 후 분리배출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상(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에 출전한 동아리 구성원은 2학년 김현성, 김찬원, 장민규, 정원우, 석동관, 박준영, 김도연 등 7명이다. 이들은 평소 교내외에서 환경보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고, 학업 및 생활면에서도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이다.

경남중, 고입 전형 안내 1차 설명회 개최

코로나 상황 비대면(ZOOM) 진행 큰 호응



Zoom 접속 설명 모습.

경남중(교장 김미정)은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안내를 위한 1차 진학 설명회를 비대

면으로 개최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진학상담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한 조치였다. 이번 진학 설명회는 사전 설문을 통해 학부모의 희망 날짜와 시간에 맞추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준비되었다. 지난 9월 7일(화) 오후 8~9시 비대면(zoom)으로 실시, 학부모 호응도가 매우

경남중 용마장학생, 동문 선배에 감사편지

장학생 각 학년별 2명씩 선발

경남중은 최근 학년별 2명씩 장학생 6명을 선발, (재)용마장학회(이사장 이용흠)가 지원하는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금은 1인당 50만원, 총 300만원이다. 장학생은 김지운(3학년 2반) 김민규(3학년 1반) 정승환(2학년 4반) 권정우(2학년 4반) 이재욱(1학년 5반) 김동찬(1학년 2반) 군으로 학업과 생활면 등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들이다.

이번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동문 선배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아래에 소개(사진)한다.



높았다.

설명회는 3학년 학부모와 학생을 중심으로 하였지만, 1,2학년 학부모와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약 120여 명이 함께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진학설명회에서는 2022학년도 고입 전형 일정,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및 후기 평준화 고등학교에 대한 안내를 듣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진로설명회를 통해 진로 선택에 당면한 3학년생들은 물론이고, 1,2학년 학생들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경남중 깜짝 방문

방역상황 점검·교육활동 참관...학생·교직원 등 격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 9월 7일 경남중을 깜짝 방문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학사일정 및 방역상황 점검, 교육활동 모습 참관, 학교 현안과 애로점 등을 청취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과 정성을 다해 가르치는 교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경미회 당구대회 “3달 만의 짜릿한 손맛”

제4회 대회, 대외협력분과...응원 회원 늘어

“경미회의 당구대회는 지속 가능한 행사가 되었다.”

지난 9월 29일 오후 충동창회관 내 KN당구장에서 열린 제4회 경미회 분과별 당구대회를 거친 인상이다. 회를 거듭할수록 안정적으로 대회가 잘 운영되는 등 틀이 잡혀가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하에서 3개월 만에 열린 대회에 응원 차 참석한 경미회 회원이 가장 많은 대회였다. 그동안 경미회가 예정했던 야유회, 족구대회, 정기모임 등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자 회원들의 관심이 당구대회에 쏠린 것이다.

이날 대회에서 우승은 대외협력분과(현응열·29회, 권우일·45회, 박성영·53회), 준우승은 친목교류분과(구자삼·45회, 신현식·51회, 박기홍·55회)가 각각 차지했다. 3위는 미래발전분과(한창희·41회, 최상배·45회, 김지운·52회)에 돌아갔다. 대외협력분과의 우승 요인으로 당구 ‘고수’ 현응열(29회) 사무총장을 포섭하여 팀원으로 만든 게 주효했다고 한다.

최다참석 분과는 친목교류분과와 미래발전분과가 각 5명 동률을 기록, 각 분과 위원장이 가위바위보로 승부를 가렸다. 친목교류분과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날 45회는 회원 7명이 참석, 추후 시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 이수환(37회) 동문이 식어도 맛있는 ‘무바바치킨’ 10마리를 직접 배송해와 대회를 마치고 간단한 치맥파티가 열렸다. *대회 찬조 내역=이수환(37회) 20만원, 최영준 30만원, 한창희(이상 41회) 30만원.

이날 게스트로 윤원욱(39회) 이양걸(41회) 정용중(42회) 조청래 최상배 조태성(이상 45회) 신정일(46회) 동문이 참석했다.



경미회 제4회 당구대회 기념사진.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경미회 제4회 당구대회 시상 모습. 위로부터 우승, 준우승, 3위 시상.

일삼산우회 = 572차 정기산행



지난 9월 12일(일) 일삼 용사 12명이 해운대 문텐로드길로 청사포 등대까지 나들이를하고 해운대로 나와 온천욕도 즐기고 이름난 해운대갈비에서 갈비와 소맥으로 마무리했다.

참석자 : 강종원 박민보 서종학 신민철 안성문 이종달 이태량 장영길 정영화 조광수 조성호 최성욱

17회 산악회 = 이기대 둘레길 산행



코로나 때문에 나눠 산행한 지도 벌써 해를 바꾸고 작년 가을 장산에서 깜짝 합류 산행 후에 근 일 년 만에 지난 9월 18일(토) 오전 10시에 오륙도 앞에서 모였다. 모두 11명, 이산가족 재회같이 모두들 반긴다.

그 무렵던 지난여름이 인사도 없이 가고, 초가을 날씨. 바람이 일어 부딪치는 파도 소리 듣기가 시원하다. 쉬어도 가며 3시간 가까이 이기대 바닷길을 둘러 쉼자리에서, 허출한데 장어구이 안주로 맥주가 시원하게 넘어간다. 당분간 한 달에 한 번씩은 합류산행을 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산행을 마친다.

참석자 : 김길호 김종국 박신도 박인사 박재구 박청홍 송유근 신정아 오태식 이진우 하영수

<기사 20면에 넘김>

<기고>

변화의 바람 가져온 ‘용마 축구 리그’

경남중학교 학생회장 3학년 1반 김병민

‘용마 축구 리그’를 아시나요? ‘용마 축구 리그’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교 행사이며, 해마다 반 대항전으로 운영되온 축구 리그입니다.

하지만 작년, 이 행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개최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용마 축구 리그’가 개최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아쉬웠지만, 올해는 개최되리라는 믿음으로 아쉬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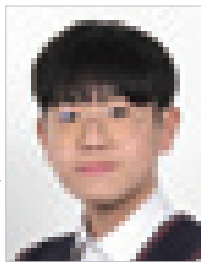
그러나 코로나는 올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확진자는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백신이 도입되었지만, 아직 학생들은 접촉할 수 없어 올해마저도 ‘용마 축구 리그’는 개최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탓에 학생들의 아쉬움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특히 1학년 때 용마 축구 리그를 통해 반 친구들과 화합하고, 함께 행복함을 나눴던 현재 3학년 학생들의 아쉬움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회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학교생활의 추억을 선물하고자 ‘용마 축구 리그’를 운영할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렇게 다른 학교의 사례를 조사하던 중 ‘분포리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산 분포중학교에서 백신이 없던 작년 8월에 개최되었던 축구 리그로, ‘용마 축구 리그’와 매우 비슷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포리그’와 같은 사례를 통해 ‘용마 축구 리그’를 운영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용마 축구 리그’를 운영하던 중 혹시라도 저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리그 운영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 중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 전후 손 소독제를 뿌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용마 축구 리그 운영 수칙을 만들었고, 이 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에 서약한 학생들만이 ‘용마 축구 리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실시된 ‘용마 축구 리그’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경기마다 학생들은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서로의 반을 응원하고, 다른 학교 학생들도 부러움을 자아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대회 진행 중에 생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동심과 배려를 배우고, 모든 학생이 서로 화합하고 추억을 쌓는 등, 우려 속에서 시작된 리그는 오히려 학생들을 한 층 더 성장시켜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의 시간은 멈추었습니다. 코로나는 당연히 여겼던 일상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추억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로 똘똘 뭉쳐, 멈추어버린 시간이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용마 축구 리그’ 운영은 변화의 바람이었고, 이 바람은 학생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용마 축구 리그는 학생들에게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선물해주었습니다.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기사 19면에서 받음〉

19회 재경산악회 = 인왕산 석굴암 & 자락길 산행



지난 9월 19일(일) 13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수성동 계곡~석굴암사~전망대~인왕산 자락길~운동주문학관까지 구간에서 산행을 다녀왔다. 이번 산행거리 3.5km, 산행시간 2시간 5분 소요.

참석자: 문찬 인선 종선 상만 정덕 경래 철원 광호 상택 양조 태진 성철 순창

21회 산우회 = 정기산행

지난 9월 26일(일) 오전 10시 이기대 갈매길 산행을 다녀왔다(송원경 외 9명). 화창한 날씨에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산행을 시작해서, 중간에 준비한 족발, 명게, 어묵탕 등으로 배를 채웠다. 오후 2시쯤 오륙도 도착해 근처 백운포 진주횃집으로 이동했다. 푸짐한 회로 회포를 풀고 오후 5시에 산행을 마무리했다.

24회 산우애 = 7월 정기산행



지난 7월 3일(토) 24회 산우애(등산동호회, 회장 태창업, 총무 김인구) 제23차 7월 정기산행을 하였다. 이번 산행은 2021년도 첫 산행으로 자갈치역~26번 버스~송도 해성아파트 종점~진정산 일주 트레킹~서울집~송도해수욕장 입구 코스로 다녀왔다.

참석자: 광두희 김인구 박해성 배재일 손세영 안형수 장현동 조재진 최승국 태창업 황규선

33산우회 = 880차 아미산 등반



지난 9월 12일(일) 33산우회는 880차 아미산 등반을 다녀왔다.

참석자: 김법영(김미란) 김종만(윤서현) 김태훈 남택은 민병현(공미형) 지창근

35회 울산동기회 = 9월 월례회

지난 9월 30일(목) 오후 7시 삼산동 외식명가에서 코로나 2차 접종 완료 기념으로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남권효 박희찬 손경호 이효성 전상건

“모교 야구부, 치킨 먹고 힘내!”

익명(44회)·정신(47회) 동문, 배달 주문 기부 선행

모교 야구부에 ‘후배사랑의 치킨’ 기부가 이어졌다. ‘위기는 기회’라는 역발상으로 지난 8월 25일 개업한 이수환(37회) 동문의 무바바 치킨점(사하구 장림동신우림아파트 상가1층)이 중계소이다.

지난 8월 31일 낮 ‘44회 동문’이라고만 밝힌 익명의 기부자가 가게를 찾아와 100만원 어치의 치킨을 주문했다. 모교인 경남고 야구부 후배들에게 전달을 부탁했다. 전광렬(44회) 야구부 감독을 좋아한다는 기부자는 후배들이 통닭 먹고 힘내라는 기부 취지를 밝혔다고 한다.

치킨 100만원 어치 59마리는 지난 9월 3일 오후 4시께 경남고 야구부에 배달됐다. 이날 전 감독과 정수찬(46) 코치, 야구부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비지땀을 흘리



며 훈련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들은 훈련을 잠시 멈추고 선배가 선사한 치킨 파티를 열었다.

지난 9월말에는 정신(47회) 부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동문이 전국체전 출전을 앞둔 경남고 야구부에 무바바치킨 100만원 어치를 기부(사진)한데 이어, 경남중 야구부에도 50만원 어치를 기증했다. 경남고에는 30마리씩 나눠 전달했다.



54회 동기회 = 임시총회



지난 9월 16일 사상구 야끼짬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주요안건으로 집행부 개편, 모교발전기금, 동기회비, 2022년 동기회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 고지현 김영빈 양현진 이동하 이재진 임길환 정준섭 조중완

55회 동기회 = 임원단 회의



지난 9월 23일(목) 오후 6시 서면 개미집에서 55회 동기회 임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2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 관련, 동기들과 다양한 의견으로 의미 있는 회의를 하였다.

하영일(18회) 동문 부부, 제주 올레길 도보 완주



하영일(18회) 동문이 부인 김윤희 여사와 함께 제주도 올레길 425km 도보 완주에 성공했다. 77세의 하동문은 74세의 부인과 올레 1월부터 걷기를 시작해 지난 9월 9일 완주를 마치고 완주증서를 취득, 노익장을 과시했다. 하 동문은 경남고에서 교사로 봉직한 ‘은사 동문’이기도 하다.

문정수·오세정 동문, 편집위원 격려

문 정수·오세정(이상 12회) 동문이 최근 총동창회관 내 모교 80년사 편찬 위원회를 방문



(사진)해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을 기증하고, 편집위원들을 격려했다.

삼사공사 회원, 모교사랑기금 전달

해운대지구 동창회서 활약 중인 ‘삼사공사(三思公士)’ 회원 배대결 윤기갑(13회) 김화옥(14회) 동문이 지난 9월 2일 오전 총동창회관 사무국을 방문, 김대옥(29회) 총동창회장에게 모교사랑기금을 삼사공사 명의로 전달했다(사진).



요즘 어떻게?

<19회>

△김동주 = 빙모상. 8월 20일 작고.
△김영태 = 장남 세훈 군 8월 28일 (토) 낮 12시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 터홀에서 결혼. △윤명한 = 모친상. 9월 21일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발인.

<20회>

△차재권 = 빙모상. 9월 10일 안산 단원병원 장례문화원에서 발인. △홍순태 = 빙모상. 9월 24일 명덕효요양병원(대구)에서 발인.

<21회>

△박현두 = 장남 준영 군 8월 22일 (일) 창원 그랜드 머큐어 엠베스트호텔에서 결혼.

<24회>

△김상영 = 차녀 10월 3일(일) 서울 한스갤러리에서 결혼. △김현덕 = 장남 9월 5일(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결혼. △정영덕 = 부친상. 8월 4일 서울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진병건 = 모친상. 9월 19일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에서 결혼.

<25회>

△김규진 = 모친상. 8월 15일 고신대 복음장례식장에서 발인.

<26회>

△강용수 = 차남 문철 군 10월 3일 (일) 오후 2시30분 대치동 더 그랜드 힐 컨벤션 2층 사브리나홀에서 결혼. △김성철 = 장남 지훈 군 10월 11일 (월) 오후 1시 아모리스 역삼GS 타워점 1층에서 결혼. △백유찬 = 장녀 나예 양 8월 28일(토) 오후 6시 부산 힐튼 호텔 1층 볼룸홀에서 결혼. △오승학 = 모친상. 9월 24일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주형 = 모친상. 8월 26일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

에서 발인. △장성지 = 빙부상. 9월 13일 수원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정종기 = 딸 유정 양 9월 4일 (토) 오후 6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

<27회>

△강태영 = 부인상. 8월 3일 영도 해동병원에서 발인. △김수인 = 「도전 열정 & 야구 이야기」 발간. △이종찬 = 빙부상. 9월 5일 대구의료원 국화원에서 발인. △윤종철 = 부친상. 8월 11일 동래 봉생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28회>

△김용진 = 아들 근영 군 9월 26일 (일) 낮 12시30분 서울 더캐플렛청담 3층 커티지홀에서 결혼. △김중섭 = 모친상. 8월 3일 경기도 부천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박일동 = 부친상. 8월 14일 영도 정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백창덕 = 아들 종현 군 9월 25일(토) 낮 12시 서울 코트야드 매리어트호텔에서 결혼. △윤대주 = 부친상. 8월 2일 경남 김해 전문장례식장에서 발인. △이민우 = 장모상. 8월 28일 감전동 삼신전문장례식장에서 발인. △이희우 = 장모상. 9월 23일 일산 명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정성목 = 부친상. 8월 8일 부산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조대현 = 아들 영래 군 10월 10일(일) 낮 12시 파라스파라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결혼. △천윤철 = 부친상. 7월 31일 경남 거제 거봉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29회>

△김기영 = 빙부상(고인 송두성 - 경남고 생물 선생님). 9월 28일 해운대 성심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배성호 = 딸 리원 양 9월 25일(토) 오후 1시 파라다이스호텔 본관 2층 카프리

홀에서 결혼. △신흥기 = 장녀 지혜 양 10월 3일(일) 오후 2시30분 센텀 사이언스파크 웨딩홀 23층, 더스카 이홀에서 결혼. △윤선영 = 빙부상. 9월 9일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홍택중 = 「홍택중 심혈관 내과」 9월 1일 개업. 부산진구 서면로68번길 1, 노블레스빌딩 10층(부전동). tel. 051-819-9938, 9939.

<30회>

△권영제 = 부인상. 8월 4일 화성 원광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재현 = 장녀 성령 양 9월 11일(토) 디엘웨딩홀 마리아홀에서 결혼. △김진천 = 빙부상. 8월 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박은수 = 장남 한결 군 10월 16일(토) 오후 2시30분 서울 에디스웨딩컨벤션 4층 에디스홀에서 결혼. △서재원 = 차녀 빛나 양 10월 31일(일) 오전 11시 W웨딩(국민연금빌딩) 1층 컨벤션홀에서 결혼. △유대현 = 부친상. 9월 8일 울산 동강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유현덕 = 「서울 당신을 위한 정형외과 의원」 5월 31일 개업. 부산시 금정구 장전로 10, 가온메디컬 2층(장전 래미안 APT 후문). tel. 051-517-2607. △이상필 = 부산시 수영구 스포츠클럽 초대 회장에 취임. △이용우 = 모친상. 9월 15일 희운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정경목 = 부친상. 8월 8일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조명제 = 부친상. 7월 31일 함안하늘공원 공설장례식장에서 발인. △차민영 = 모친상. 9월 29일 서호병원장례식장에서 발인. △최병태 = 모친상. 8월 25일 울산시 터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31회>

△박종호 = 모친상. 9월 6일 사직동 아시아드 장례식장에서 발인. △서동균 = 모친상. 9월 1일 동광동 메리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장경규

부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병태(11회) = 7월 22일 작고
△김광택(13회) = 9월 11일 작고
△지영기(13회) = 9월 12일 작고
△구광수(18회) = 7월 25일 작고
△김문기(19회) = 8월 5일 작고
△임준형(21회) = 8월 25일 작고
△조용석(21회) = 7월 28일 작고
△손성호(24회) = 8월 23일 작고
△박동건(25회) = 9월 21일 작고
△권수원(28회) = 9월 30일 작고
△송재봉(33회) = 9월 22일 작고
△이태수(34회) = 9월 14일 작고

= 모친상. 8월 23일 서울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전창수 = 빙모상. 8월 4일 초량동 인창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최해영 = 빙모상. 8월 11일 감전동 부산전문장례식장에서 발인. △홍정표 = 모친상. 8월 23일 범천동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33회>

△공진우 = 빙부상. 9월 23일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창학 = 아들 민수 군 10월 2일(토) 오후 3시 서울 상록아트홀(B1) 그랜드볼룸에서 결혼.

<34회>

△김화봉 = 빙부상. 8월 22일 부산(주)수장례식장에서 발인. △정노혁 = 모친상. 9월 20일 괴정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38회>

△박이현 = 부친상. 9월 18일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39회>

△박종국 = 종합쇼펍몰 ‘더나더몰’ 오픈. <http://더나더몰.com> △이승현 = 「만포장횃집」 개업. 부산시 사하구 하신번영로380번길 125-3(하단동). tel. 051-208-8587.

동 정

이원철(28회) 동문, 부산법원상임조정위원 위촉

법무법인 국제의 고문변호사로 활약하던 이원철(28회·사진) 동문이 변호사 생활을 마치고 부산법원조정센터의 상임조정위원으로 위촉 받아 지난 10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2년이다. 대도시급(부산) 센터의 상임조정위원 위촉은 동문으로서는 두번째이다.

‘조정’이란 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을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상임조정위원은 △처음부터 조정 신청된 사건 △판사가 재판하다가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보낸 사건을 맡아서 화해를 권유하고 설득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폭넓은 대인관계와 공정한 법무 처리로 명망이 높은 이 동문은 “법조인으로서 마지막 직 무라 생각한다” 면서 “36년 전 판사로

임관하였던 초심(初心)으로 되돌아가 사건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동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2회 사법고시에 합격, 마산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투신한 이래 판사 4년, 변호사 32년의 풍부한 경력의 법조인이다.



박진용(36회) 동문, 부산시 모범선행시민상 수상

‘행복한 도시’ 조성 기여 공로

박진용(36회·국토교통도시안과대표원장) 총동창회 집행위부회장이 최근 부산시로부터 ‘모범선행시민상’을 수상했다(사진). 봉사와 선행 실천을 통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동문은 21년간 지역 주민의 눈 건강을 위해 힘써 왔다.

부산시 모범선행시민상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시민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박 동문은 제23회 용마골프대회에도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협찬한 것을 비롯, 평소 총동창회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봉사와 기부를 실천수범하고 있다.



2021년도 회보구독료 납부자 명단

● <총 2,250명> (2021. 9. 29 기준)

경남중고동창회보는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와 얼마 되지 않는
광고료 수입만으로 제작·우편발송 되고 있습니다.
2021년 구독료(연 3만원)를 내주시면 회보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 101-2074-0332-05

예금주 : 경남중고 총동창회 김대옥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선납부자 명단(회보구독료)

6회 최갑영 2022년
8회 장혁표 정금출 2022년
11회 김광석 2024년, 김옥실 이재진 2022년, 이세영 2025년
13회 박흥표 2022년, 안성문 2029년, 이경재 2030년
15회 윤상준 임영길 2022년

16회 문성환 2022년, 민신웅 2023년
17회 전영부 2022년
18회 박기주 박석도 최재범 2022년, 홍우재 2024년
19회 이성달 2022년
22회 유명운 2022년
23회 박재호 2028년, 신언국 2022년
25회 김상수 김연석 김용범 이성웅 2022년, 임창운 2051년

26회 이상원 2030년
28회 안풍 임익성 2022년, 하재근 2028년
29회 김인술 이정운 2022년, 황유명 2023년
30회 강석철 2030년, 박정국 2022년, 박철우 2027년, 신교선 2025년
33회 최웅남 2030년
34회 이성엽 정하태 2022년
37회 서동욱 2024년, 이수환 전인수 2022년
38회 권두성 2029년, 정재형 2022년

40회 박훈재 2025년
46회 한영길 2022년
48회 김춘호 2023년
50회 박중현 2028년
51회 신혁휴 2025년, 신현식 2029년
53회 황종민 2023년
54회 엄도용 2024년, 이찬희 2022년
69회 정민기 2023년

3회(5명)
노관택 송두호 윤태윤 이안규 하덕모

4회(6명)
김희수 박흥기 양중학 장수호 정순모 정치근

5회(10명)
김재관 김진휴 박장후 상기중 오백식 이문기
임성업 정인조 진도영 홍관식

6회(13명)
김종철 박웅진 배중권 변영수 손웅수 오영은
유상환 이희문 임경택 경건용 정덕환 정승화
최갑영

7회(16명)
강병희 김갑성 김삼현 김용우 김진홍 김태배
노상석 박환배 배중현 송외득 오장은 윤용우
임성극 임의택 조덕찬 하근수

8회(18명)
김봉길 김상식 김재범 문창화 박재범 박희옥
안종열 엄덕량 이종택 이준혁 이춘기 이호수
이희순 장혁표 정금출 조봉석 최재혁 홍광수

9회(13명)
김기관 김 청 박영복 서해량 신용익 안규현
유병철 윤일명 장동근 전인규 정 록 지삼봉
한동대

10회(33명)
강희운 김기호 김상규 김선동 김성규 김정학
김평순 박경수 박재경 박철민 신규태 심영환
오강욱 이계창 이근태 이상배 이승영 이승준
이윤수 이재순 이정호 임정우 장기상 전영대
정상수 정종만 조길수 조상진 조중제 진 강
최병도 최형백 하영수

11회(51명)
강병희 강용대 공상기 권병용 김광석 김병기
김성규 김옥실 김용만 김용정 김원형 김윤택
김인섭 김태호 김학수 김향곤 문정오 박관호
박창순 박희태 백근덕 서영호 서자운 손봉길
심재룡 심재홍 양수택 오정광 유홍중 유홍수
윤태원 이강우 이계찬 이균우 이상태 이상길
이세영 이재진 이종백 이태순 장세원 장영권
정석철 정운표 제정오 지창호 천금준 천동조
최동영 최득호 최창욱

12회(61명)
강본순 강창수 구진웅 권시길 김기수 김기인
김동열 김봉하 김부생 김부환 김상열 김선일
김영보 김영수 김우성 김강욱 김중련 김중일
김지희 김훈호 문준화 박문기 박상도A 박영운
박용문 박정운 박호민 배기원 배병일 배종섭
변동만 서병기 손재준 심용치 안상직 안영배
엄태섭 오세경 윤학근 이규만 이상현 이수영
이승태 이영한 이용언 이원우 이현달 이희동
장동석 장일근 정대식 정수복 정호중 조정제
조한기 조홍래 차민도 최경균 추영재 허은도
홍두표

13회(76명)
강종원 고송구 고시준 구문평 권영계 권영채
권영환 김동호 김무조 김상치 김신부 김일수

김정균 김정일 김종의 김치득 김한규 남영기
문 창 박길만 박안남 박영주 박일웅 박정웅
박종탁 박흥표 배대결 배정운 서시주 서영웅
성정호 송신의 신동배 신 명 신민철 안성문
윤기갑 윤조웅 윤태호 이경재 이근모 이범경
이병한 이상문 이웅재 이종달 이준범 이창성
이창열 이창호 이철세 이태량 임소철 임영홍
장영길 정덕치 정로상 정영화 정은섭 정중현
제병민 조병성 조준탁 조철현 차영일 최상호
최성욱 최영완 최태환 추지석 한병조 한진희
허갑도 허 훈 황일인 황정대

14회(56명)
강주신 권 명 김덕행 김도선 김동화 김무남
김익명 김재도 김창기 김 총 김태희 김형수
김화옥 노수덕 류총일 문운용 박남조 박만인
박병선 박순일 박중철 박철수 박정홍 배중현
백태우 신기석 신용진 신준호 유정호 윤영현
윤태규 이경우 이광연 이길미 이명재 이수남
이현영 이환균 이호근 이훈일 장삼식 정용마
조광명 조기정 조경현 진성태 최낙섭 최병태
최성웅 최충락 하문수 한규환 한수길 허 증
황원재 황준성

15회(57명)
강무상 강민조 강부부 강창일 권승부 김경일
김소현 김쌍열 김영훈 김옥규 김완식 김장길
김종태 김중한 김중광 김충식 김판열 남기주
남암순 박영무 박찬호 박호가 배 훈 백승진
손부홍 신용기 안경숙 오봉석 윤상준 윤우경
이상호 이의일 이정부 이종수 이종희 이태창
임영길 장봉고 장중호 정석우 조규증 조영일
최광웅 최무길 최병우 최 욱 최원수 최진도
최영수 하정부 한진철 한해수 허경도 허종덕
홍익찬 황건세 황중부

16회(66명)
강상권 강영주 강종국 강진중 공명규 권명석
김광수 김광용 김두웅 김박일 김상호 김영우
김일규 김경우 김정호 김 조 김중덕 김창희
김충길 문성환 민신웅 박기용 박두영 박용일
박종복 방수근 배정희 변일수 서태복 설희순
성기식 성진호 손승방 송규정 송자문 안인환
엄종원 여성국 예방해 오형철 유영명 윤호주
이경환 이길홍 이무근 이방소 이성남 이양근
이영재 이종철 이철원 임승언 장사충 정우광
정일성 정태성 조길우 조원제 주기민 지수신
채경일 최경일 하주열 하회진 한일량 황규호

17회(54명)
김정은 권경술 김길우 김길호 김동수 김동조
김상천 김용구 김윤남 김용경 김준연 김중성
김지창 김창운 남궁성은 박가식 박신도 박인사
박재구 박홍식 서정승 손성근 송유근 송인문
송인창 신흥규 심문섭 양성일 어윤대 오홍한
윤성욱 유수성 이세복 이수원 이수창 이형우
임우택 임정수 장길성 장웅석 장호남 전경명
전대홍 전영부 정광우 정두호 정량부 정병렬
정용화 천용광 최성호 추봉실 하영수 허진형

18회(69명)
갈영수 강덕용 강영호 강인섭 강정일 고병현
김경걸 김경권 김경화 김광웅 김귀언 김기섭
김만수 김사권 김성건 김재창 김중금 김중철
김지호 김홍대 류중우 박건태 박기주 박대웅

박덕봉 박동오 박민학 박상욱 박석도 박선동
박영복 박 용 박용주 박용혁 박준구 박중문
박준성 박호영 서부원 서재봉 서준규 설현기
손무열 손찬규 안창범 오수명 우원호 윤봉수
이금희 이충남 이형석 임채영 전기준 전병희
전영석 정구홍 조성재 최 인 최재범 최진수
하영일 한기대 한기철 허도행 허만조 허성태
허영태 홍우재 황광건

19회(85명)
강동완 강재욱 김경우 김경재 김규하 김덕규
김덕수 김명수 김배호 김봉호 김석윤 김성진
김영우 김영탁 김영태 김윤기 김인선 김일천
김재근 김정우 김중기 김중우 김진국 김진호
김찬균 김철호 김행복 노덕현 노태규 박동화
박상식 박상택 박성철 서승성 선우일남 성낙출
성한진 손기태 손말현 손철수 신동인 신윤철
심재구 안정모 오태수 유문환 윤수상 윤영규
이근식 이명환 이병구 이상만 이상우 이성달
이양한 이용조 이용흙 이창희 이종명 이창도
이창돈 이창윤 이창흙 이춘만 임우근 임채원
장성규 장홍의 전영석 정규병 정용식 정원찬
정태을 조성환 조재윤 진수상 최병수 최상대
최학익 한명섭 함진복 허남걸 허홍욱 황태경
황태원

20회(54명)
강부덕 강석근 김두영 김성룡 김세준 김영철
김우홍 김원갑 김조동 김중민 김찬만 김철영
김한원 김형오 남경열 남기석 목길진 문성채
문시영 민영기 박용덕 박 준 박지오 배준태
백완균 백창열 손춘수 신원기 심두수 안재상
오기현 유근준 윤병규 윤우성 이수호 이실근
이영오 이종원 임세호 장상대 장춘식 정규식
정세현 정승창 조영철 조윤태 차용환 최명호
최상인 최석립 최창하 최중경 허남균 허주한

21회(87명)
강민우 강수경 강순석 강영도 강욱형 강원태
강창수 강태순 공기화 구분능 구현수 김기현
김남규 김대웅 김동우 김병수 김부근 김상덕
김영삼 김유건 김익수 김조영 김현태 김형동
김홍근 김황세 마상준 박명문 박명욱 박인협
박일송 박자민 박재선 박주용 배영일 배 일
변창섭 서덕수 서병문 성경근 신대윤 안상갑
안승원 안채식 양병주 여환부 오거돈 오태규
우성건 우종덕 육화원 유승근 이명환 이문수
이성집 이익규 이재택 이재호 이준성 이 혁
임경범 임성철 장정표 전기환 전우성 정상인
정연호 정태영 조상호 조성근 조학래 조현국
조호제 진영천 차동민 최동완 최민석 최원중
최점수 최정림 최충린 탁원령 하영준 한대윤
허영도 허창수 황영실

22회(74명)
강상대 강호일 고인준 곽대홍 금명환 김광국
김도실 김동욱 김동원 김명수 김성재 김성태
김세근 김승규 김원주 김일봉 김일준 김정근
김정민 김진철 김학균 김해현 남백우 노평호
박규모 박승목 박인표 박재구 박재상 박홍조
배병한 배춘식 백봉주 변대석 변중호 부창전
서경덕 손연모 손용섭 송승훈 심재복 안영수
오세길 유명윤 유인조 유재탁 윤동원 이민성
이운규 이윤제 이춘식 장무성 장성덕 장성복
장영근 정근화 정남식 정진식 정해진 조장현

조흥기 최광욱 최성열 최영택 최학봉 하성일
하현성 한근택 한태길 한형우 허범도 허승조
허인석 황영환

23회(71명)
감인홍 고용석 구영수 구자섭 김건일 김기열
김동욱 김상태 김석현 김영기 김영철 김익곤
김정록 김주찬 김중광 김태용 김태홍 도명세
박기홍 박수갑 박영호 박재호 박중환 배중순
배준석 백승찬 백창영 서승환 송영춘 송재섭
송충송 신경재 신동규 신언국 안범두 안병을
오도준 유석산 유원형 유진우 윤길원 윤만수
윤병조 윤태규 이강우 이기호 이대우 이덕남
이동성 이병찬 이상수 이수백 이승호 이영재
이윤석 이일원 이정욱 장기원 장백기 전명식
전상대 전영조 전재홍 정동일 정상건 정용호
채행운 최영목 최인식 하복진 한명경

24회(78명)
강동우 강창흠 곽두희 구본열 권수찬 권해영
김경남 김경호 김도인 김도현 김동운 김만복
김명배 김무성 김봉용 김승탁 김영만 김영민
김윤수 김은호 김인규 김정신 김학성 김한근
김헌태 남진현 남창영 노상우 박극제 박윤성
박천호 박홍규 배중갑 변용준 서정대 서정득
손성호 손인수 신강우 안상수 안형수 여철우
원동희 윤석만 이대영 이동진 이명복 이상우
이 수 이영태 이재능 임덕철 임민호 장민재
장세호 장현동 전대현 전용우 정광윤 정명근
정영석 정용호 조영태 조용화 조재진 조태홍
조현찬 주승환 주권권 진병건 차동렬 최동우
최현규 태창업 하 욱 하재갑 한상렬 황성훈

25회(128명)
강수명 고명식 구도근 구자훈 권태용 김건우
김광돈 김길수 김대현 김덕우 김동진 김문국
김상겸 김상수 김상필 김수국 김수석 김연석
김영수 김영호 김옥권 김옥철 김용경 김용범
김우형 김우환 김익수 김정학 김중국 김중윤
김중현 김진우 김진철 김창욱 김창호 노태호
문재인 박건수 박경립 박광용 박동건 박맹우
박세철 박태호 박중기 박중진 박진상 서보민
배기동 배대관 박영진 서민상 서병수 서태민
서인진 서재규 서정욱 석창재 성경철 손기천
송동준 송영근 송영기 신경학 신성기 신성찬
안수영 안영복 안희석 양승욱 양시욱 예종복
오양득 옥동훈 우진태 유용기 윤순기 윤태석
이계성 이근만 이대우 이동익 이명철 이상봉
이상화 이상웅 이승욱 이신하 이우석 이인규
이창훈 이태근 이태식 이학준 이홍성 임영대
임창은 장세훈 전선태 전영훈 정길영 정신배
정재봉 정철수 정영성 조경일 조대우 조병욱
조 익 조판계 좌상봉 주재길 차인환 최경호
최병주 최재환 최차호 최차환 최태동 탁준길
태명산 한석정 한준석 한현고 허만택 허영형
허 택 황근태

26회(82명)
강수남 강영년 강익규 고석훈 구영호 김광식
김기표 김두천 김민철 김영섭 김일광 김재용
김정근 김재무 김정원 김중우 김재영 김태년
김택영 김 형 김호용 민창현 박경수 박경재
박근석 박동조 박상호 박오욱 박원상 박원세
박의영 박재우 박재욱 박효대 백문현 서현수
성백운 성재업 성재일 손영수 손욱호 신동춘

심승택 왕정일 왕효석 윤승용 이경호 이광태
이명진 이상원 이성근 이순철 이양춘 이영학
이유상 이재봉 이정근 이주형 이창식 이희준
임철호 장경재 장만옥 정영륜 정익고 정재영
정태현 정현준 조만석 조일제 지용섭 최명해
최성락 최성수 최수일 최의수 하성봉 하원규
허진호 홍순하 홍정곤 황광수

27회(55명)
강태영 고창우 곽태홍 김강호 김광철 김근우
김명기 김병욱 김병철 김병호 김상문 김안석
김영삼 김우진 김중욱 김지언 김진명 김학회
김호균 문두찬 문성기 박규욱 박춘규 박치호
반정열 배병록 배효택 변재국 서기룡 신한원
양태중 오봉인 윤석건 윤종락 이민부 이성득
이요섭 이원호 이종경 이종찬 이천식 이 현
장인철 장창조 전 풍 정남근 정두식 정재호
조봉관 천우태 최인성 최희진 하창우 한상훈
한수길

28회(75명)
구영소 권기택 김관세 김대생 김만중 김명철
김상윤 김선경 김용석 김용섭 김익성 김인준
김준연 김창준 노상천 노영배 노영현 리신호
문성룡 민교식 박병준 박성권 박영규 박종기
박진화 배효진 백무현 백영호 서기희 서정환
신중현 안재홍 안 풍 양동욱 엄보용 엄재홍
엄소현 오호석 옥상근 유봉수 윤경섭 윤명일
이관선 이만수 이민우 이양훈 이원철 이종대
이종만 이종환 이홍오 임상규 임익성 임재덕
전선국 전진학 정두현 정백수 정영주A 정인식
정치영 정해영 조석태 주창석 최강호 최광해
최연삼 최연옥 하재근 한기웅 한명재 한봉석
허남식 허영철 황장두

29회(73명)
강대용 강성훈 권오영 금시환 김갑태 김기수A
김기원 김대영 김대욱 김병희 김부겸 김부근
김석윤 김 영 김영훈 김인술 김재현 김정규
김정암 김중권 김중명 김철오 박국인 박근우
박동일 박동홍 박명섭 박상길 박성근 박인평
박창언 박희규 백성욱 사공운곤 서석철 서영학
설동일 손영보 손태권 송경문 신현수 안창홍
양승룡 윤석희 윤 옥 이남중 이문열 이범익
이병진 이상용 이승호 이승훈 이정윤 이준환
이진옥 장현경 전강화 정 길 정성훈 조승제
조진수 조창열 차의수 최기훈 최문성 최영식
최정만 하현태 한만수 현계성 현응열 황맹균
황유명

30회(79명)
강석철 권용택 김경수 김기섭 김기수 김기업
김백수 김병기 김상직 김성복 김승대 김영일
김옥석 김유기 김재일 김치영 김해곤 김현태
남영호 노동춘 도문성 박규완 박원호 박재백
박정국 박정태 박중배 박철우 박희관 변윤수
서강태 서민석 서하수 석희원 신고선 신구균
신윤원 신인기 양문섭 오경태 옥유전 유재일
윤인태 윤종순 은현수 이명건 이성기 이성조
이수성 이용우 이원용 이종욱 이철호 이태봉
이한수 이호걸 이호준 이한기 인준승 장봉규
장석일 장호영 장훈상 정경목 정기룡 정성원

정순길 정승진 정영호 정태환 정해석 채영재
최영규 최우철 최 옥 최진근 최진권 하규양
황철민

31회(67명)
권해철 김기정 김시현 김영철 김정덕 김종규
김중호A 김형수 김효연 남기태 남철우 노성현
류명석 민중현 박경수 박석두 박인정 박중호
박춘열 박해성 박희암 배인환 서규영 서동균
서수고 서태고 손영태 손은정 손진기 신상하
신수열 신용필 심중식 안기수 안중수 오민일
오용환 오호철 옥치호 윤석중 이병태 이승원
장건호 장재훈 장정철 정무석 정용식 정용정
정원규 조성근 조영기 조현우 차인용 천창호
최부영 최상웅 최인목 최재호 최진섭 최해영
최효식 하명수 하병관 하학렬 한문성 홍 구
홍성수

32회(33명)
김광기 김상범 김영길 김종판 김창범 류희희
민길식 박상학 박성철 박우상 박원근 박종구
박진원 배종찬 송기수 신국선 신한국 양문성
오경명 우득현 윤병조 이병훈 이상용 이성훈
이재수 이종휘 임인섭 임채균 장기호 정용운
정의주 최춘호 최호영

33회(52명)
고창성 공진환 김기산 김대현 김영환 김병영
김원일 김윤성 김재도 김재선 김중만 김종인
김태훈 김 혁 남경태 노경호 류장근 박근보
박명진 박상국 박성병 박창완 박태중 배성수
백수현 서광기 서재영 송성림 송중현 신동천
안동문 안영훈 안찬모 예영찬 오향선 이동근
이석희 이윤조 이은우 이진우 이상훈 장정석
정아준 정영호 조덕환 조영학 주기훈 지창근
최영두 최웅남 최한호 황경원

34회(27명)
강승기 객수균 김두섭 김범석 김상갑 김태하
김화봉 노인선 박철웅 옥재영 이강희 이성엽
이용희 이정철 이준권 이진호 장현기 정도혁
정하태 조문국 조 선 조시형 진양호 최대한
최웅철 홍승철 황병주

35회(28명)
김관우 김기철 김길호 김동일 김우경 김우신
류인수 류철인 박동렬 박창제 서석권 성규원
손기철 손태섭 안중엽 안종일 오시영 윤종호
이복근 이상환 이원우 이종찬 이춘기 임주택
장인화 정효영 주귀홍 최기평

36회(52명)
공진식 권일복 김관용 김규선 김길호 김덕주
김병국 김병주 김영훈 김용진A 김용진B 김재호
김중백 김중오 김중일 김창일 김철원 김한교
박승근 박영준 박영찬 박진용 박철중 박형출
방진영 백태민 서광원 성귀호 신용덕 양석용
양호진 윤경준 이도희 이상준 이성호 이우수
이원석 이정영 이 창 이학수 이한호 임서룡
임창섭 임창의 정갑영 정병기 정윤희 지동섭
차대일 최재혁 최태섭 한형식

37회(31명)
김기동 김성현 김영곤 김원범 김의렬 김종휘
김준오 김형기 노태건 문진형 문희영 박용진
서동욱 소수현 송경철 유호섭 윤태현 이수환
이호진 장원익 전인수 정재호 조상현 조현철
차기완 천웅찬 탁낙준 하태민 허부남 홍병일
황태운

38회(34명)
강금성 광동열 권두성 김경곤 김경태 김대훈
김문철 김상수 김원철 김태호 김현민 류인식
문익현 박이현 박준표 박태봉 방기대 신동훈
심 춘 안길수 오승언 오희진 윤경만 이수관
이창호 이태훈 정인철 정재형 조석태 조용철
주영록 차성철 최휴경 한민득

39회(45명)
김대중 김병기 김명부 김윤홍 김종엽 김현진
노성수 문기호 박근태 박상환 박인석 박종국
박준근 박진열 박해동 백기현 서은식 송영호
심왕섭 안영준 여동섭 유숙경 윤동배 윤원욱
이가용 이상학 이성태 이승기 이영수 이종욱
이종운 이철원 이태운 장동수 장윤혁 정순환
정연설 정용국 정우영 정진해 천용준 최보식
하성표 하순호 허중기

40회(33명)
강창지 고승성 권병서 김근영 김중철 김창민
김춘강 김학수 나수민 문태영 박우성 박재현
박준재 배병훈 서정민 순균호 심 철 안경진
옥진형 우영환 윤경학 이강욱 이 기 이병완
이상백 이정삼 이태욱 임태영 장갑구 장명재
최치언 한수열 황성수

41회(30명)
강병오 강석희 김병성 김봉준 김신욱 김영철
김인수A 김경태 김형률 류지섭 박동규 박상환
박정기 박정의 백창봉 성종훈 안광근 윤광희
이경호 이광희 이양걸 임병호 장윤호 전삼록
조재봉 최영준 한정호 한창희 허중윤 황정후

42회(16명)
강인호 고장석 권영태 김광철 김동수 김재용
김태구 남화정 문지성 박동식 신동복 신봉준
정용중 정홍준 제정환 조명준

43회(22명)
강병규 구명진 김대영 김대훈 김동현 김신현
김종식 김진수 김태형 김희경 문희찬 박경곤
송대성 윤성진 이상현 이용상 이진배 장병철
정호범 최용석 최한림 허재원

44회(22명)
김동욱 김성준 김성훈 김찬홍 김해근 김형모
문형준 배봉건 서영민 우도균 윤상훈 윤철홍
이동렬 이승철 이창용 전광렬 조영호 조진현
조청현 탁정환 한수성 황인주

45회(43명)
강동호 구자삼 구태욱 권우일 김경수 김동규
김동욱 김병환 김상수 김성준 김중현 김진수
김찬수 김찬호 김창균 김태규 김현철 김현호
박중호 박진수 박진영 박진환 박훈식 손창오
신상호 양현욱 오문찬 윤한균 이광석 이규진
이상현 이정일 정상희 정중훈 조청래 조태성

주형기 최상배 최재근 최재영 최지우 하인수
황귀웅

46회(34명)
강남구 구경민 권성기 권진근 김규태 김대기
김동욱 김동희 김백권 김부규 김승완 김태영
김태준 김희택 문용성 문정기 배동석 백경택
서승진 신정일 안명기 오영훈 윤경한 윤성곤
이동수 이성민 이재광 이태환 장윤성 최원석
하성용 한영길 홍이준 황상철

47회(15명)
감기환 강백중 고달우 김동휘 김재성 성상용
손효준 오성진 이기문 이승택 정민호 정 신
정윤희 차기혁

48회(8명)
권태현 김정훈 김주현 김춘호 김충진 김태균
이동재 차원일

49회(5명)
안형수 이충현 장민건 조영철 최진영

50회(7명)
구경모 김유진 박종현 서석진 윤종선 장태효
최종빈

51회(15명)
강승호 구대서 구민석 김기호 김동주 김명권
김영태 박보순 박성주 반길호 신석진 신혁휴
신현식 이건영 정진우

52회(32명)
강영철 강재식 구순모 김명중 김민수 김민철
김상근 김성화 김용권 김지운 김현진 김형준
문성환 박상현 박선중 박정규 변의현 변정환
심종배 양현승 유종갑 이경원 이도경 이세벽
이해곤 정길수 정상중 정현철 최형주 한중현
허근영 허홍만

53회(14명)
강덕천 광상훈 김경찬 김광호 김권우 김상욱
문희규 송승윤 우재준 이원준 이진수 전세일
한동인 황종민

54회(16명)
강치범 고강인 고지현 김승택 김영빈 남준현
박신우 손희원 엄도용 이재진 이재필 이찬희
장성민 정준섭 제재철 조중완

55회(8명)
권세호 박기홍 이옥한 이종원 이향림 장지훈
최범준 최성원

56회(1명) 손정현
58회(2명) 김현윤 정 혁
60회(1명) 이명휘
65회(1명) 이정조
66회(3명) 김덕형 김시준 성범석
67회(2명) 전명재 황유광
69회(1명) 정민기
78회(1명) 홍경민
79회(1명) 김민규
기수 & 이름 확인불명 3명

모교 80년사 자료 수집 공고

총동창회는 경남중고 80년사 편찬위원회(위원장 박종찬 총동창회 고문)를 지난 해 8월 15일 출범시켰습니다. 2022년 4월 25일 발간을 목표로 모교 80년사 편찬 작업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난관도 있습니다.

경남중고 모교에 보관된 자료를 정리해 본 결과, 많은 기간에 걸쳐 자료 부실 혹은 부재가 드러났습니다. 자료가 빈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교 80년사 편찬은 경남중고의 역사책으로서 사상 처음 만드는 기념비적 과업입니다. 동문님들께서 개인 소장하고 계신 학창시절의 오랜 자료를 흔쾌히 보내주셔서 흘러진 역사를 연결하는데 도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복원작업이 진행 중인 경남고 덕형관(원형교사)에 조성될 ‘역사박물관’(가칭)에 전시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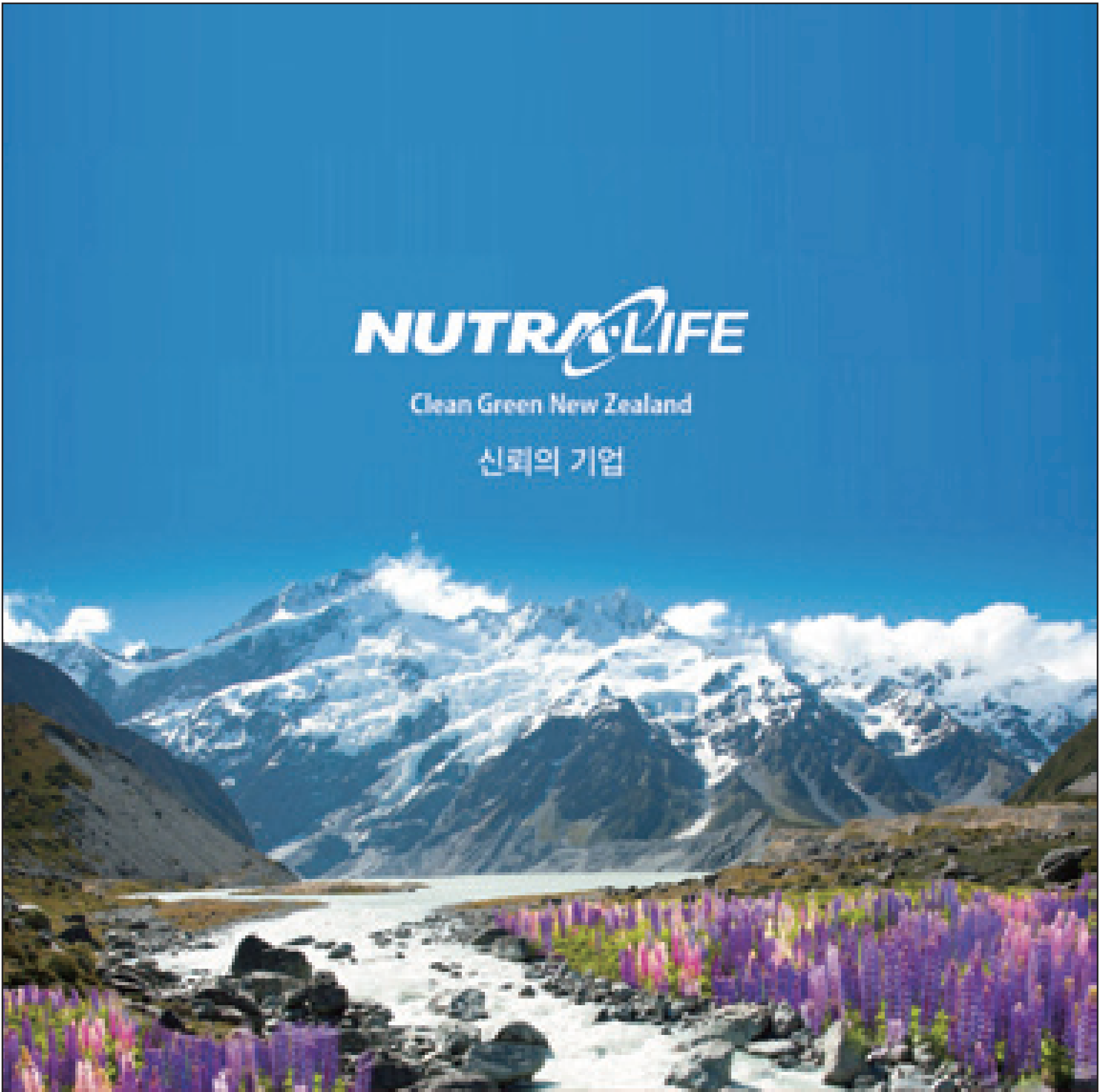
- 1 자료의 종류 : 월보, 학보, 교무 행정서류, 사진, 전산자료, 교복, 모자, 단추, 명찰, 상장, 상패, 앨범, 동영상 자료 등 학창시절과 연관된 모든 물품
- 2 자료를 보내실 때 기수와 성함은 물론 간단한 설명 쪽지(날짜, 내용) 포함
- 3 보내주신 자료는 ‘착불’로 함(우송료는 편찬위원회 부담)
- 4 보내주실 곳 ●우편 :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8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관 5층 모교 80년사 편찬위원회 ●이메일 : parkgyver2@naver.com
- 5 기간 : 2022년 2월까지

경남중고등학교 8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박 종 찬

2021년 구독료 납부현황

2021년 9월 29일 현재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1	0	0	0%	20	68	54	79%	39	66	45	68%
2	0	0	0%	21	105	87	83%	40	97	33	34%
3	6	5	83%	22	98	74	76%	41	78	30	38%
4	7	6	86%	23	94	71	76%	42	50	16	32%
5	11	10	91%	24	115	78	68%	43	75	22	29%
6	20	13	65%	25	197	128	65%	44	63	22	35%
7	21	16	76%	26	108	82	76%	45	56	43	77%
8	25	18	72%	27	83	55	66%	46	46	34	74%
9	24	13	54%	28	90	75	83%	47	40	15	38%
10	42	33	79%	29	117	73	62%	48	13	8	62%
11	63	51	81%	30	115	79	69%	49	49	5	10%
12	77	61	79%	31	89	67	75%	50	70	7	10%
13	91	76	84%	32	46	33	72%	51	113	15	13%
14	68	56	82%	33	62	52	84%	52	141	32	23%
15	77	57	74%	34	37	27	73%	53	43	14	33%
16	86	66	77%	35	56	28	50%	54	91	16	18%
17	64	54	84%	36	65	52	80%	55	12	8	67%
18	91	69	76%	37	41	31	76%	56	10	1	10%
19	105	85	81%	38	45	34	76%	57이후	32	12	38%
Sub-total(1)		689 명		Sub-total(2)		1,180 명		Sub-total(3)		378 명	
미상		3 명		목표인원		4,000 명		구독료납부인원		2,250 명	
총발송부수		3,654 명									



뉴트리라이프 뉴트리라이프 연구 센터



열차라 전 - 부교장

기능식품 외길 30년 23회 이상수